



# SEOUL NATIONAL UNIVERSITY

## U.S. ALUMNI NEWS

제274호 | 2017년 2월

www.snuaa.org  
news@snua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Fax: 484-342-0222 | 발행인: 손재욱 편집인: 김정현



##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지난 2월 4일 Norwalk에 위치한 Double Tree by Hilton에서 2017년 남가주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210 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민일기 총무국장(약대 69)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순서는 개회선언(오형원, 의대 53)에 이어 미국 국가(선창: 서영란, 음대 75)와 애국가(선창: 정인환, 법대 54) 및 교가(선창: 조용국, 사대 94) 제창이 있었다. 다음 민일기 총무국장의 역대회장 소개에 이어 2016년도 사업보고가 있었고, 한귀희 부재무(미대 68)의 재무보고로 이어졌다.

이어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은 이임사에서 “2017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힘은 미약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에 지난 1년간의 41대 동창회장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땀 흘리며 함께 일한 임원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단과대학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추억들을 제 마음 속 깊이 담아두겠습니다. 200 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지난 5월의 동문가족 야외 바베큐 파티, 연인원 350여명의 동문들이 캠프를 하며 즐거움을 나눈 노동절 연휴 2박 3

일 맘모스 레이크 가족동반 캠프는 미주사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슴 속에 각인된 것은 <원로선배 오찬> 모임에서 275명의 선배님들이 동창해 주신 일입니다. 한분 한분 선배님들을 맞이하는 후배들의 마음 가짐은 서울대인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선배 없는 후배가 없듯이 이는 서울대인의 열려있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는 변화와 도전은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되어 후배들에게 이어져 피어 오를 것입니다. 새로 바톤을 이어받은 성주경(상대 68) 회장은 모교를 선양할 수 있는 회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충분한 역량과 체계적인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바랍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어 성주경 신임회장 및 강신용(사대 73) 차기 수석부회장 인준이 있었고, 1년 동안 임원으로서 수고가 많았던 민일기(약대 69) 총무국장, 차기민(공대 85) 재무국장,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 그리고 1인당 동창회 지원금을 제일 많이 기부한 박영국(미대 66) 미대회장, 단과대 회장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채규환(법대 68) 법대회장 등에게 김병연 총동창회장이 공로패를 수여했다. 감사패는 후원금을 제일

많이 기부한 홍광식(공대 62), 한귀희(미대 68), 조무상(법대 70), 김기형(상대 75), 그리고 재능 기부를 많이 한 백정현(음대 66) 동문에게 수여되었다. 이어 동창회기 전달식이 있었고, 동문을 대표하여 성주경 신임회장이 이임하는 김병연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성주경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내외 귀빈, 그리고 동문님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책임이 저와 새 임원진에게 있게 되었는데 저를 도와서 같이 일하겠다고 한 임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문들께서도 많은 의견과, 격려, 질책, 그리고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물질적인 도움으로... 일반적인 행사 및 모임은 가능한 한 지금까지 해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창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젊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동문들로 임원진을 채워 보려 노력하고 이 젊은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선배가 조화된 동창회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기준(법대 54) 전 총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강신용 수석부회장 인사

가 있었다. 다음 신임회장단 발표와 인준에 이어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다.

2부 순서로 이어져 축하 연주가 있었는데, 양의경(농대 72) 동문의 Soprano Solo, ‘Pleurez! Pleurez! Mes Yeux by Jules Massenet’는 성악 전공자를 능가하는 음색과 가창력이었다. 다음 서울대 코랄이 ‘Shenandoah, 눈’ 두 곡 후 앵콜로 ‘동무생각’을 불렀다. 팝송 순서에서, 백정현(음대 66) 동문과 박혜옥(간호대 69) 동문 부부의 Duet, ‘Perhaps Love’와 백정현 동문의 Solo,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은 앵콜 박수를 많이 받았다.

다음 Curly Fries밴드의 공연으로 이어지며,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특등상인 한 국왕복 비행기표 두 장(성주경 신임회장, 강신용 수석부회장 제공)은 한석란(미대 71) 동문과 Mrs. 김병연 씨에게 돌아갔다. 1등상 ipad(김병연 이임회장 제공)는 한효동(공대 58) 동문, 2등상인 48인치 TV는 김옥권(미대 75) 동문이 추첨의 영광을 안았다. 그 외 단과대 회장들이 많은 상품을 기증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나와 흥겹게 춤을 추는 가운데 서로 악수를 주고받으며 신년회는 끝났다.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사진: 고정범 (법대 79)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                                        |                                           |
|----------------------------------------|-------------------------------------------|
| 1 남가주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 14 장동만: 선진 한국/정보                          |
| 2 미국이 준 교훈/45대 미대통령 취임식 참관기            | 15 특집: 이석호/정선주/김정현/송윤정                    |
| 3 출마의 변: 이서희                           | 16 건강: 태아 점돌연변이 진단/김수영·아리랑 판타지아           |
| 4 출마의 변: 신웅남                           | 17 과학회 겨울서신/연봉원: 변호사 매매                   |
| 5 출마의 변: 김창수                           | 18 김지영: 강남좌파/김기택: 강아지훈련                   |
| 6 총동창회 신년인사회/미스 함부라비출간/시애틀 SNU 포럼      | 19 백옥자: 금빛 8순잔치/시: 폭설·서운석                 |
| 7 지부소식: 록키 마운틴스                        | 20 이종호: 군자의 길/단상·이병광: 무와 유                |
| 8 지부소식: 뉴잉글랜드북가주                       | 21 영화-김정현: LA LAND/독후감-민경훈: 광야의 기사        |
| 9 지부소식: 뉴욕/워싱턴 DC/북가주/남가주/김정현 개인전      | 22 예술-정유석: 바보들의 배/백선하·금성 신순상 급증           |
| 10 지부소식: 남가주/강영일 부부 커플전시회              | 23 지인수: 삶의 여정/추모의 글/김학천·모순어법              |
| 11 김성지: 세빌리아 이발사 주연/고태화 올해의 작가전/       | 24 한효동-The Godfather/오늘의 나를 있게 말: 김기훈,박취서 |
| 12 최진훈: 산을 향해 눈을 드니 출간/이영목: 문학의식 작품상 수 | 25 이달의 사진: 박은숙/역사·최용관: 일주일의 7일된 유래        |
| 13 상/백순 정경다리출간/이태상 코스모스 시리즈완간          |                                           |



이형열 (법대 57)

미국으로 유학오기 전 중학교 시절부터 한국정치가 비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헌법에 규정된 임기 제한을 ‘사사오입’이라는 방법으로 엉터리 개헌을 하며 다시 당선되었고, 결국 4.19 학생 봉기로 Hawaii 로 망명을 떠났다. 그 후 불안정한 정국은 계속되어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났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어 보였다.

그런 실망적 정치 실태를 경험한 후, 61년에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에 오니 인상적인 것이 매년 4년마다의 평화스러운 정권교체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선거가 끝난 후 1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서로 격려하며 안정된 정치가 새로 시작되었다.

‘아, 이것이 민주주의의 민심이 이렇게 깨었구나’ 하는 느낌이며 교훈이 되었다. 물론 60년대만 해도 남부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었고, Virginia 에서도 백인과 유색인종의 결혼이 금지되었던 시기이다. 이런 부도덕하고 반정의적인 법과 관습은 Challenge(도전)되었으며 Martin Luther King 목사는 Lincoln 대통령의 Memorial 앞에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해서 많은 백인 미국인들도 인종차별 금지에 동조하였다. 대학원 학생이었던 나도 “Freedom March”에 참여하였으며 King 목사의 연설은 나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었다.

둘째 인상 깊었던 교훈은 막강한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결국 후대 역사의 심판만이 아니라 당장 탄핵 소추를 받아 대통령직도 사퇴해야 된다는 “Watergate” 사건이었다. 닉슨 대통령과 같은 당에 속한 많은 공화당 상·하원의원들도 위법적인 닉슨의 행동을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결국 닉슨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사직한 대통령

## 미국이 준 교훈



령이 되었다. 이런 법치주의인 미국에서 청렴한 청교도의 사상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물론 미국이 Utopia는 아니다. 아직도 인종차별, 범죄, 부의 편재로 사회문제가 많으나 건국 초부터 합리성, 당위성, 실용성을 중요시하고 헌법에 강조된 자유, 평등, 행복의 추구를 미국 민주주의 기초 반석으로 삼았기때문에 이런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Meritocracy(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였기때문에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성공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내가 이 나라에 와서 교편을 잡았을 때 나의 발음이나 Korean English 가 우습게 들렸겠지만 그들은 그대로 내가 교수였기때문에 경청을 했다. 결국 학생들은 나에게 자기들의 인상이 나쁘게 느껴지면 자기

들의 점수도 나쁠 것이라는 실용적인 생각과 내가 미국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즉 나의 Legitimacy(합리적인 합법성)를 인정해 준 것이다. 자유분방한 나라지만 역시 권위도 존중해 준다.

셋째, 미국의 옥토와 자원들이 너무 풍부하여 그들이 관대하고 커다란 대륙성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상이 나에게 들어왔다. New York Harbor의 ‘자유의 여신상’이 이민자들을 반겨주듯이 현재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성립되었고 부흥한 나라이다. 대다수의 미국 Nobel 상 수상자들은 20세기에 이민 온 사람들이며 많은 이민자들이 이 미국에 공헌을 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Trump의 반이민적 정치 구호는 오래 호응을 못 받을 것이다.

미국의 원주민은 미국의 인디언이며 그 국민은 모두 이민자들의 후예이다.

물론 미국도 역사의 흥망성쇠 법칙에 의하여 영원히 Pax American 을 유지 못하겠지만 아직도 좋은 정치지도자와 열심히 일할 성실한 이민자들을 계속 유치한다면 21세기 후반까지 미국 민주정치와 우월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믿는다.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Trump 당선자 같이 미국의 경제와 제도를 비판적으로 비평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당선을 위한 권모술수의 dogmatic 한 선거 연설이고 아직도 미국은 민주주로 성공한 상징적인 국가이고 전세계 경제 생산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도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월등한 위치에 있다.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Harding, Hover, Buchanan, Trump 같은 대통령도 있지만 위대한 Washington, Lincoln, Franklin Roosevelt, Jefferson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논설위원장, 웨퍼드 대학 석좌교수)

boy라며 힐러리 후보측에서 맹공격을 가했지만 미국 백인 여성의 53%가 트럼프한테 표를 주었다. “플레이보이라면 힐러리 남편 Bill Clinton보다 더하랴. 그런 건 문제될 것 없다. 어떻게 미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지”라는게 백인 여성들 다수의 생각이었다. (대선 직후 뉴욕 타임즈 여성 상대 여론조사 결과)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주요언론이 거의 매일 트럼프를 흡입내는 기사를 써왔으나 트럼프를 꺾지 못했다. 그들의 예측이 빗나가지 화가 난 주요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역사상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강한 의지로 자신이 공약한 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rump is not just a talker. He is a doer! (트럼프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가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화유(문리대 61)



하마트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망칠뻔한 빗방울은 한 10분 쯤 떨어지다 그쳤다.

나는 지난 11월8일 투표에서 트럼프한테 한표를 던졌다. 트럼프가 훌륭해서가아니라 그가 the lesser of two evils (두 악마 중 덜 나쁜 악마)였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여성을 깔보는 play-

〈45대 미국대통령 취임식 참관기〉

### 트럼프 취임연설이 시작되자 힐러리 눈물같은 빗방울이...

Donald J. Trump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모습을 필자는 바로 50미터 앞에서 지켜보았다.

워싱턴 시각으로 1월20일 정오였다. 부동산 재벌이자 인기 TV프로 사회자로 명성을 날린 70세 노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곤 1년 전만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2015년 초겨울 그가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미국 언론들은 저러다 말겠지 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그는 10여명의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치고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었고, 막강한 민주당 여성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맞붙었다. 그리고 낙선 확률 97%(CNN 예상)를 뒤집고 대권을 잡았다. 미국 정치사의 기적이었다.

취임식 날 일기예보는 정오를 전후해 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보안관계로 우산은 가지고 행사장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해서 비닐 우비(plastic raincoat)만 하나 가지고 갔다. 초청장을 가지고도 취임식장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두번이나 공항에서와 같은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취임식장인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할 때까지도 비는 내리지 않고 흐린 날씨만 계속되고 있었다. 천만다행이구나 생각했다. 취임식은 11시 30분부터 시작되어 11시 55분 쯤 마이클 펜스 부통령의 취임선사가 먼저 있었다. 이어서 12시 정각이 되자 잔 라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oath of office (취임선서)를 받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내가 앉아있던 언론인 좌석을 뒤에서 갑자기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우리 미국 국민은)’으로 시작하는 미국 헌법 전문(머릿말)을 큰 소리로 외우는 대어섯 명의 젊은 남녀가 있었다. 아마도 트

럼프를 싫어하는 자들이겠 같았다. 그들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그런 짓을 한 것 같았으나 휴대용 확성기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기때문에 그들의 욕성은 트럼프가 듣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 그들은 막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

선서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이 빗방울이 힐러리 클린턴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웃음띤 얼굴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 화면에 잠시 비쳤다. 그러나 그녀는 속으론 정말 많이 울었을 것이다. 힐러리는 일반국민투표에서 거의 300만표나 더 받고도 각 주별 대의원 선거에서 306대 232으로 트럼프한테 참패했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분할 것이다.

하마트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망칠뻔한 빗방울은 한 10분 쯤 떨어지다 그쳤다.

나는 지난 11월8일 투표에서 트럼프한테 한표를 던졌다. 트럼프가 훌륭해서가아니라 그가 the lesser of two evils (두 악마 중 덜 나쁜 악마)였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여성을 깔보는 play-

## 출마의 변

미주동창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세분의 동문들이 제 15대 동창회장(차차기)에 입후보 했습니다. 인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받은 후보자들의 견해와 계획을 각 후보의 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이서희 (법대 70) CA

대한 의욕이 있어 차차기 회장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2. 1981년도에 미국에 와서 그동안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Ph D 과정으로 보낸 긴 기간(학위 아직 없음), 아담 잘 잘 커서 자기 몫을 하고 있는 것, wife하고 여전히 잘 붙어 다니고 있는 것, 지금도 하고 있는 무역업, 법대 남가주 동창회장 3번, 최근 2014년도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맡으면서 느낀 것은 회장초정은 공짜가 아니고 그 댓가로 동문들을 위해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LA 협의회 2009-11 회장을 맡아 동포들이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미주 첫 통일무지개운동의 성공적인 시도, 청소년의 정체성 및 조국에 대한 자부심 제고와 더불어 남북분단에 관한 책 ‘대한민국: 발전과 통일’ 발간, 단체의 화합을 위한 노력등등, 돌이켜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초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업무를 해왔습니다.

3. 미주동창회에서 이제껏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Webpage의 관리는 관

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동문들이 webpage를 활용하려면 contents update가 자주 되어 가능한 한 많은 동문들의 사진 및 동정이 실리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은 IT 담당자들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예산 결산심의, 신임회장 선거, 기타 안건 등을 토의 결정하는 평의원의회가 매년 6월에 시행되어 왔습니다. 평의원들은 동창회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창회 일을 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 모임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Cyber Meeting 형식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동문들의 좋은 제안에 대한 평의원들의 의견교환은 각 지역의 의견수렴을 의미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미주동창회가 총동창회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동문들은 실질적으로 받아 들이게 될 것입니다.

4. 그간 느낀 점은 신문발간 외에는 지역 동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주총동창회는 지역동창회가 뿌리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동창회 조직은 친목단체입니다. 견혀진 화비중 일정한 부분을 Charity, Education목적으로 지부에 되돌려주면서 동창회의 목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 납부실적, 계획등을 감안해 연말에 미주동창회 ‘Santa Claus Month’ 행사로 지역 동창회에 자금지원을 하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미주 전 동문이 미주총동창회의 역할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될 것이고 회비납부 실적도 호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번에서 말씀드릴 지

역 및 미주동창회에서 Charity, Education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될 것입니다. 기금은 동문들의 협조로 만들어집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구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5. 나눔위원회와 장학위원회는 꼭 필요하며 지역동창회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회보와 web을 통해 의미를 홍보하면서 뜻이 있는 동문들에게 직접적인 접촉으로 호소하면 성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각 지역동창회에 일정한 숫자의 장학생후보자 선정을 요청·심사해 매년말 Santa Claus Month 행사를 통해 장학금을 각 지역 동창회로 보내줍니다. 지역동창회내에 장학제도가 있으면 미주동창회와 통합해 협력하는 방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은 각 지역동창회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하여 이에 따라 나눔위원회에서 협조방안을 구체화하고 시행합니다.

6. 동문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미주동창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부 활동에 대한 미주총동창회의 조인 및 비용지원은 총본부와 지역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지역간의 교류는 각 지역의 취미활동에서 더 나아가 미주지역 동문의 전체 동아리그룹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 동문간의 인적교류는 이곳에 살고 있는 동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webpage를 활용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미주동문들이 모임 수 있는 자리 마련도 동문들간의 유대 및 친목에 일조

를 할 것입니다.

7. 우리 모두 각자가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민간외교 사절의 역할, 재외국민 투표, 미국시민으로서의 voting power 제고, 또한 2세들의 정치력신장을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동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누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8. 한국에 있는 총동창회 및 모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발전기금지원, 재학생 초청등은 이미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있는 동문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또는 단체를 만들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는 이런 동문들에게 감사표시와 더불어 다른 동문들에게 널리 알려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눔은 각 지역동창회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하여 이에 따라 나눔위원회에서 협조방안을 구체화하고 시행합니다.

9. 동창회는 동문들에게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보람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활성화되며, 동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듣고, 회장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잘 하고, 그리고 옳은 방향이라고 결정이 되면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창회는 친목단체로서 이에 맞는 일을 해야 하고, 모임은 밝고 잔치집 같도록 만들어야 동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 촛불과 태극기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 후 1월 둘째 주말 서울에 체류하게 되어

어 한국의 집회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저녁 6시경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서 내리니 마침 시청 앞 광장에서는 태극기를 손에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 덕수궁 앞 던킨 도너츠에서는 많은 시위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커피 한잔으로 몸을 녹이고 있었다. 젊은 층도 눈에 띄었지만 장년층이 주를 이루었다.

광장에서는 고성의 확성기 소리로 누군가를 매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만들어 놓은

벽 안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 그 안은 잘 보이지 않았다. 참석자가 대략 2,000명 정도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면서 섬세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시위를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세종로 길로 300m 가량 북쪽으로 가면 광화문이 나오고, 시위 현장은 다소 한산해 보였다. 한때 200만명이 모였고 연 1,000만명이 참석한 집회에 대한 예상이 빗나간 느낌이었다. 광화문 광장에도 경찰이 세운 벽으로 인하여 집회하고 있는 안쪽을 볼 수가 없었다.

마침 스타벅스 커피숍이 근처에 있어 이층으로 올라가니 창문으로 제12차 촛불 집회 장면이 보였다. 커피숍 안에서는 젊은이들이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

이 바깥쪽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했다. 촛불집회 장소에서는 누군가 무대에 올라가 추위 때문에 마이크 든 손에 동상이 걸리겠다면서 누구누구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 다 같이 따라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곳 집회도 눈짐작으로는 중년층 2,000명 정도로 보였다. 저녁 7시경 광화문 일대는 전면적인 교통통제가 실시되면서 중로 방향으로 행진이 시작되었다.

지적간의 두 장소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이로니컬하게 보였고, 의견이 다르다고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리 그리고 특검의 피의자 및 증인신문에 대한 뉴스는 너무 많이 보고 들어 다소 식상한 기분이 들지만 앞으로로 1-2개월은 참을성 있게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국민들은 국가질서가 파괴된 것에 분노

하고 있는데 정작 파괴한 자들은 기억안난다 또는 모르겠다고 서로 합의한 듯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사회지도층의 이런 나쁜 풍조를 국민들이 불쾌해 하면서도 행여 배울까 두렵다.

흔히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면서 지인의 흠에 대하여 입 다무는 것으로 의리로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우선시해야할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리이다. 피의자와 증인들은 국민이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된 원인이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하겠다.

희망과 밝음을 상징하는 촛불, 안정과 국가의 안위를 상징하는 태극기. 이제 헌법재판소와 특검에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와 촛불과 태극기는 경축을 있게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서희 (법대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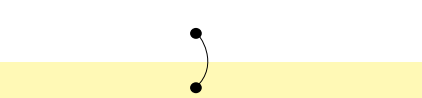
-세계 속의 서울 대인을 바라보며-
미주 동창회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이곳에 함께한 동문 여러분들은 70, 80년대에 이민온 세대로서, 전 세계를 리드해가는 미국에 살면서 서울대인의 긍지를 품고, 남다른 포부와 열정을 소유하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문회는 미주동창회, 지역동창회 존재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또한, 도전과 혁신의 21세기를 보내며, 10위의 선진 대열에 올라선 조국의 동력을 되짚어 볼 때,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모여 한 나라의 중심에 서서 사회 전반적인 분야, 경제, 과학 등에서 공헌한 서울대인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누구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세네카의 말에, “인생은 옛날 애기와 같아서 그것이 얼마나 길었는가보다는 얼마나 알았는가 더 중요하다.” (As is a tale, so is life: not how long it is, but how good it is, is what matters.”)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바드 졸업식에서 해리 포터 작가 J. K. Rowling이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짧은 것이고, 백세 시대라 하나 그리 긴 시간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민의 땅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자부심과 긍지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 한 모교에 대한 잠재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꺼내어 함께 한다면, 우리 공동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하 법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썰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0여년 이민 역사에 따라 변천한 미주동창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만사의 때에 따라, 이제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자부심과 열정을 모아 공동의 보람된 비전을 향해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각오로 본인은 미주 동창회 15대 회장으로 출사표를 던지며, 지면을 빌어 선후배님께 인사드립니다.



## 아메리카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세계의 이목을 모으며, 새해 1월 20일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들과 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존 로버츠 앞에서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헌법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45대 미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미국시민을 향해 우리가 함께 강하고, 부유하며, 자랑스럽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고 역설했다.

그리고 취임 1주일만에 선거공약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미국과 전세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왔다. 즉 멕시코의 국경 장벽 건설, 모슬렘 7개국 잠정 입국 금지, 오바마 보험의 무효화, TPP로부터의 탈퇴, ... 등등. 미국의 주요 언론사는 물론 전세계 주요 상대국 리더들에게도 폭풍과 같은 충격파를 던진 것이다. 마치도 거대한 정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았을 것이다.

그가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한 미 헌법의 가치 보존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럼 지난 반세기 동안 미 헌법관련 랜드마크적 대법원 판례 중,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케이스를 예로 들어, 미대통령이 지키기로 한 헌법적 가치는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낙태에 관한 Roe v. Wade (1973년)판결이다. Roe(Norma L. McCorvey)는 3번째 자녀를 임신하고 고환인 Texas로 이주한 후, 합법적으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없자, Dallas 검사장인 Henry Wade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냈다. 동판결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규제와 정도와 개인 특히 여성의 낙태권리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 판결의 요약은 “여성은 태아가 모태 밖 생존

가능한 시기 전에는 낙태의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임신부의 건강보호와 생존 가능한 태아의 (23~24주째) 보호를 위해서만 개인의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을 쓴 Harry Blackmun 판사의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이 난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선거 때가 되면, 이번 선거에도 예외없이 Pro-Life v. Pro-Choice 의 양보없는 주장을 보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ivil Rights Act로 알려진 미 수정헌법 제 14조에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은 합법적인 절차에 준하지 않고는, 정부로부터 개인권리가 제약을 받을 수 없다는 Due Process 조항과, 누구나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Equal Protection 조항이 있다.

법은 그리고 그 법의 해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며 사회나 국가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가치관이, 개인의 자유와 법앞에 동등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진보의 가치관에 우위를 내주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대법원의 Gay Marriage에 대한 판결이다. 2015년 6월 26일 대법원은 개인의 자유 및 성정체성을 제한해 온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동등한 권리를 동성애자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Roe v.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동문회의 내실을 다지고 선후배 간의 존경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빛나는 미래의 발전을 향한 내적인 단합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후배가 올바른 소통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자랑스러운 동문회가 되어, 모교의 발전을 기하고, 이 신대륙에 동문회의 원대한 초석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15대 회장 입후보자 신응남 (동대 70)
.....

〈본인 소개〉
80년도에 도미. 결혼과 학업. 1997년에 미국 연방 변호사와 뉴욕, 뉴저지 변호사 자격 취득함. 가족 관계는 동문(간호학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만사의 때에 따라, 이제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자부심과 열정을 모아 공동의 보람된 비전을 향해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각오로 본인은 미주 동창회 15대 회장으로 출사표를 던지며, 지면을 빌어 선후배님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
1) 동문 배가 운동
- 주소록 발간, 월간지 지속 발간
- 젊은 회원 영입, 성공 사례 탐방/



Wade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동성애자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40여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찬성한 다수의 대법관들을 대변해서 A. Kennedy 대법원 판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헌법은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에 따른 자유로운 결혼

Trump 대통령이 지키려는 헌법적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작년 공석이 된 Antonin Scalia 의 후임으로 1월 31일에 보수 성향의 Pro -Life의 판사 Neil M. Gorsuch를 임명했다. 그를 임명함으로써, Roe v Wade 의 판결을 뒤집기를 원하며, 2015년의 Gay Marriage (5-4 결정)의 판결 또한 뒤집으로 시도할 것이 예상된다.

의 개념을, 전통적인 이성간의 결혼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정 헌법 1조 (Bill of Rights) 와 14조(Civil Rights Act)를 통과 시켰던 150년전의 입법자들도 무엇이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그들도 앞으로 올 세대로 하여금 그들이 의미하는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의 보호와 기존의 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갈등이 돌출될 때, 우리는 그들이 의미하는 자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판결에 반대하는 보수

기사화
- 모범적인 지역 동창/동창회 활동 소개 및 지원
- 순회 세미나, 순회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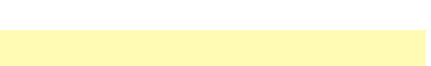
2) 서울대 클럽 위한 자금 조성
- 천만불 모금
- 재산 5% (증여/유산) 기부 운동
- 예일, 하바드 클럽을 모델로 삼아 호텔 구입 및 운동 5개년 계획
- 나눔위원회 : 일정한 펀드로 어려운 형편의 동문/ 지부활동/
- 역사자료 도움. 언론을 통한 홍보
- 장학 위원회 : 미주내 동문들의 학업 지원 /미주내 동문교수 및 모교 교수들의 미국/한국관련 연구 지원/ 모교 장학 및 발전 지원

3) 순회 미니 버스 운영
- 서울대 (SNU)로고를 새긴 미니 버스 운영으로 지역 동창회 방문
- 연중 스케줄 작성 - 인터뷰 기사를 통한 동창회 활동 홍보

4) 크루즈 상산 세미나 개최 (회원간 만남의 장, 평의원 회의)

5) 본교 음대생 초청 순회 공연

6) 기타 필요한 사업을 찾아 실행



의 의견으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렇게 기술했다. 개인의 기본권이 Due Process 조항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동 조항이 개인의 기본 권리를 확대하는데 오랜시간 동안 잘못 인용되어 왔음을 지적했으며, 결혼의 정의는 후세가 될 자녀 양육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남녀간의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 동성 결혼의 허용은 오랫동안 전통적이며, 인류의 존속을 지켜온, 대다수의 사람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회규범의 변화를 강요하는 우를 범했다.

Trump 대통령이 지키려는 헌법적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작년 공석이 된 Antonin Scalia 의 후임으로 1월 31일에 보수 성향의 Pro -Life의 판사 Neil M. Gorsuch를 임명했다. 그를 임명함으로써, Roe v Wade 의 판결을 뒤집기를 원하며, 2015년의 Gay Marriage (5-4 결정)의 판결 또한 뒤집으로 시도할 것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가치관의 지표이며,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켜가야 할 사회적 규범의 방향을 제시해 왔음을 위의 두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았다.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개인주의로 치달렸던 진보의 행진을 멈추고, 다시 보수의 가치를 견지하는 국가로 되돌리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Hagel은 그의 변증법적 논리에서, 모든 일은 긍정과 부정,반,합의 반박을 통해 발전되어 간다고 주장했다. 해결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보수와 진보에 아우르는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길에서 있는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아메리카호의 순항을 바란다. (신응남 동대 71)



본인은 1973년 뉴욕으로 유학을 와서 NYU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은 후 뉴욕시에서 30여년간 개업 공인회계사로 일해오고 있으며, 현재 KEB하나은행의 사외이사

CPA 사무실을 열기 전에는 미국 공인회계법인 딜로이트 H & S와 뉴욕주 재무성 세무감사국에서 통틀어 12여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많은 동문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년 반 전에 사별한 본인의 배우자는 67학번 간호대 출신의 김선자 동문이며, 저희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43년간 미국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세월을 우리 동창회와 동기동락을 해왔습니다.

38년 전에 창립된 뉴욕동창회에는 초창기부터 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세정국(I.R.S.)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직접 성사시켰습니다.

뉴욕지부에서는 동창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장학위원장과 약대 동창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년 감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역대 회장단과 호흡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는 2007년부터 감사, 평의원, 동창회보 편집위원, 논설위원, 나눔위원 등으로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본인만큼 동창회를 사랑하는 동문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미주동창회와 뉴욕지부의 연중 스케줄을 우선으로 해놓고 개인과 가정의 연중 스케줄을 짜면서 동창회의 모든 행사에 100%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동창회를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차기 회장에 뉴욕지부의 몫으로 추천된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동창회장에 당선되면, 다음과 같은 저의 포부 내지 공약사항을 실천할 것입니다.

동창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활동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임원진 이외에 각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재의 편집, 장학, 나눔위원회 이외에 기획, 재정, 조직, 대외협력, 감사 등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결성하겠습니다. 물론 임원진이 분과위원을 겸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번 회기에 결성된 나눔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서울대 동창회가 도움이 필요한 동문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동창회 발전기획위원회(가칭)를 결성해서, 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 모색과 발전모델을 기획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미국내의 25개 지역동창회 중 한 곳에서 미주동창회장이 배출되더라도 동창회는 한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동창회 본부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에 두는 방안, 그곳에 동창회관을 마련하는 방안, 동창회에 유급 직원을 두고 상설 사무국을 운영하는 방안, 회장이 바뀌더라도 동창회보를 상설 동창회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방안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각 지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상호소통과 교류를 원활히 하고,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악세대와의 관계를 친밀히 해서, 남가주지부의 아크로포리스를 모델로 하여 각 지부마다 관악연대를 결성케하고, 젊은 동문들을 동창회 활동에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질적인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동창회 조직내의 통신수단이며 정보교환, 지적 자산 공유, 조직 강화의 매체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으로페이퍼레스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뉴스레터와 페이퍼신문이 공존하는 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창회 홈페이지(www.snuaa.org)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각 지역 동창회의 Web Master들이 지역 동창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잘해서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한시 업그레이드시켜 온라인시대에 동창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대학동창회의 후원회 창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도 모금 창구를 일원화하고, 그 안에서 활동 영역별로 후원금을 배분하는 방법이 좋은지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교 및 고국의 총동창회와의 교류를 더 친밀히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역점 사업으로 동문 중에서 이민 1세에 속하는 노년층부터 상속계획의 일환으로 미주동창회나 모교에 재산의 일부를 기증 혹은 상속하는 캠페인을 벌리고자 합니다.

저는 동창회장직을 저의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생각하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40여년간 미국생활의 동반자요 기반이 된 뉴욕지부와 10여년간 봉사해오면서 구축된 미주동창회의 폭넓은 저의 인맥이 팀워크를 이루어 차차기 회장직 수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동창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저의 포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미주 동문님들의 따뜻한 총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새 정부의 경제 정책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여 지난 8년 간의 민주당 집권 후 이제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왔던 힐러리 클린턴을 예상외로 누르고 지난 해 11월 대선에서 이긴 정치외국자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제시해왔다.

트럼프는 빈부격차와 일자리 부족으로 불만에 가득찬 노동자 계층의 백인들을 자극하였고, 기성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기독교권에 대한 불신,정권교체의 당위성, 대규모의 무역 적자 등을 내세워 승산 없다고 평가된 대선에서 의외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와 이민 정책에서 지난 8년 간의 오바마 행정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으로 무역 수지의 악화, 빈부 격차로 인한 중산층 감소,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 등을 꼽았다.

이러한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급진적인 정책을 쓸 확률이 높다.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는 2015년에는 7천 450억 달러에 달했고, 작년에는 5천

그래서 불법 노동자가 많이 넘어 오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400억 달러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을, 작년에는 64%를 차지하였다.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미국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을 강조하는 트럼프 경제팀은 제일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해 가장 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적 보조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4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는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거공약대로 외국으로 빠져나간 미국기업의 공장들을 중서부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인 클라이슬러가 해외 공장 대신 미시간과 오하이오 공장 설비의 증축을 결정했고, 포드사가 멕시코로의 공장 이전을 취소하였다.

제너럴 모터스도 이에 동참해야 하는가 하고 고심 중에 있다. 이민정책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미국인들 특히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백인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불법 노동자가 많이 넘어 오는



# 만만 기부

## 기부? 만만 합니다.

매월 만원(\$10)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인재 장학금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 1. 31. 약정기준]

| 선한 인재 장학금(USD) |       |         | 총 127,050 |
|----------------|-------|---------|-----------|
| 홍진             | (간호대) | 100,000 |           |
| 박종수            | (수의대) | 10,000  |           |
| 고광선            | (공대)  | 5,000   |           |
| 염동해            | (농대)  | 3,600   |           |
| 손재욱            | (가정대) | 2,000   |           |
| 임창희            | (공대)  | 1,500   |           |
| 김기태            | (의대)  | 1,000   |           |
| 김명숙            | (간호대) | 500     |           |
| 로렌스한           | (대학원) | 500     |           |
| 문순덕            | (간호대) | 500     |           |
| 오상희            | (간호대) | 500     |           |
| 윤영자            | (간호대) | 500     |           |
| 박원준            | (공대)  | 300     |           |
| 박혜옥            | (간호대) | 300     |           |
| Chang Lee      | (공대)  | 250     |           |
| 권영달(문리대) & 이시한 |       | 200     |           |
| 익명             |       | 200     |           |
| 이창성            | (농대)  | 100     |           |
| 장순열            | (사대)  | 100     |           |



이렇게 모인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  
으로 쓰입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매월 생활비 30만원(\$300)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nu.or.kr](http://www.snu.or.kr)에 방문하시어  
미주재단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거나  
LA사무소 전화 +1-213-435-1974,  
이메일 [america@snu.ac.kr](mailto:america@snu.ac.kr) 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Facebook 오픈!

행복한 나눔을 곁에 두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습관, 만만한 기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www.facebook.com/giving2snu](http://www.facebook.com/giving2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Y.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1-212-768-9144 Fax:+1-212-768-4494 E-mail:kenneth@klcpagroup.com  
L.A. 3699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Tel:+1-213-435-1974 Fax:+1-213-739-0190 E-mail:america@snu.ac.kr

## 모교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어려운 한 해 손잡고 헤쳐 나갑시다...1000여 동문 오손도손

모교 총동창회(회장 서정화)가 지난 1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신년인사회에 각계 동문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행사는 종전과 달리 뮤지컬 갈라쇼를 비롯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출신 드러머 김희현 씨와 판소리 협연 등 이색적인 공연을 선보여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기금이 공동 개최했다. 발전기금에서는 만찬 비용을 후원하며 동문들 간 친선 교류를 지원하고 모교와 총동창회가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했다. 진행은 KBS 성세정(정치 86-91)·정다운(연론정보03-08) 아나운서가 맡았다.

최규팔(제약70-74) 약대동창회장은 “1,000명이 넘는 많은 동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행사장의 품격도 높았고 음식 맛도 좋았다. 특히 만찬 중에 펼쳐진 공연이 인상 깊다. 서양 악기인 드럼과 우리 가락이 어우러진 아리랑 선율이 흥겹고 독특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랜만에 참석한 김명도(FIP 3기) 전 미래융합기술과정 동창회 회장은 “빠른 진행과 기운찬 공연으로 행사가 즐거웠고 역시 서울대 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만 젊



은 동문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김미혜(회화78-82) 미대동창회 사무국장은 “전체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행사였다”며 “다음에는 실력있는 음악가의 공연과 더불어 동문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참여할 수 있는 레퍼토리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서정화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금을 가리켜 산업화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대인이 국민과 함

께 대한민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해낼 사명을 감당해내야 한다”고 역설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그 어려운 경우에도 모든 서울대인의 뛰어난 지성과 정신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 동문 시상식에서는 분회 역점사업인 국립 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 편찬사업에 공을 세운 임광수(기계공학48-52) 임광도건 명예회장과 이태진(사학61-65)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단과대 및 지방지부, 특별과정동창회 직전 회장을 지낸 이순재(관악극예술회)·이현주(창원지부)·박군철(ROTC동문회)·현일 회장 양관수(일본 총동창회 오사카지부) 동문 등 1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임광수 명예회장은 건배 제의를 통해 “예로부터 답이 지녔다는 ‘문무용인신(文武勇仁信)’ 오덕의 기운을 받아 금년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동문들에게 인사를 전하려 나온 홍윤식(법학75-79)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라를 똑바로 이끌어가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동문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유석 (법대 88)

## 연재소설 ‘미스 함무라비’ 단행본 출간

신문 칼럼과 ‘개인주의자 선언’ 등 저서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꼬집어온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장편소설 ‘미스 함무라비’(문학동네)를 펴냈다.

소설계 출간은 처음이지만 소설가로 ‘데뷔’한 지는 1년이 넘었다. ‘미스 함무라비’는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기고한 동명의 연재소설을 다듬어 엮은 책이다. 제목에서 짐작되듯 소설은 정의감 투철한 초임 여성판사 ‘박차오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법정 활극’이다.

소설의 무대는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들의 일상처럼 박차오름이 선배 배석판사 ‘임바론’과 함께 쓰는 사무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을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매듭짓지 못한 온갖 갈등이 하수구처럼 모여드는 곳이 법원인 탓에, 이들이 다루고 고민하는 사건들은 한국 사회를 거울처럼 비춘다. 대학 교수가 제자에게 가지는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자산가인 부친의 재산을 두고 벌이는 교수·목사 등 ‘점잖은’ 자녀들끼리의 다툼 따위다.

수십 년 전 시위 때 찍힌 사진을 지워달라며 유력 정치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대목에서는 ‘잊혀질 권리’라는 최신 쟁점을 둘러싼 법조계의 논쟁도 살

짝 엿볼 수 있다.

법정다툼이라는 자칫 지루하고 진부할 수 있는 이야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물은 박차오름이다. 지하철 성추행범에게 ‘니킥’을 날리고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출근해 엄숙한 법원에 파문을 일으키는가 하면 폭막한 도로에서 암체질을 하는 정치인의 고급 승용차를 막아서며 SNS 스타로 떠오른다. 박차오름은 전형적인 ‘샌님형’ 판사임바론, 짝 맞혀보여도 나름의 균형감을 갖춘 재판장 ‘한세상’과 구체적 사건을 두고 부딪히며 법정에서 정의를 구현하려 분투한다. 구체적 현실과 법적 논리로 구축된 세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박차오름 앞에 놓인 과제다.

작가가 현직 판사인 만큼 그동안 소설이나 영화에서 종종 틀리거나 과장됐던 법원 안팎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책 중 간중간에 법원과 판사의 업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법원의 답 없는 숙제와도 같은 전관예우 문제를 문 판사는 이렇게 진단했다.

“시민들이 ‘전관예우’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법원에 대한 불만을 폭넓게 지칭하는 것이다. 돈 있고 힘있는 사람에 대한 남독 가지 않는 양형,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는 재판,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 그 배후에 ‘전관예우’가 있을 거라 분노하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이해하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니까.”



## 시애틀 SNU포럼 모교 조현설 교수 ‘한국의 샤머니즘’ 주제로 힘차게 출발



시애틀지역 한인사회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한 서울대 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의 ‘SNU포럼’이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샤머니즘’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지난 주말인 14일 뉴캐슬도서관에서 열린 강좌에서는 한국의 유명 고전문학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대학(UW) 방문학자인 서울대 조현설 교수(국문과)가 강사를 맡았다. 자신을 ‘옛날 이야기’ 전문가로 표현한 조 교수는 이날 ‘샤머니즘에도 윤리가 있는가?’란 제목으로 무속 문제를 다뤘다.

조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사회를 뒤돌아보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종교, 구체적으로는 샤머니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사회는 샤머니즘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무속은 늘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묘

사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무속에는 경전이 없어 신학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일부 잘못된 목사가 있지만 모든 목사가 비윤리적이지 않듯이 모든 무당들이 사기를 치는 것도,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교수는 “신라시대 이차돈 사건이 불교와 무속이 충돌한 대표적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도 불교가 상대적으로 무속을 비윤리적으로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매달 두번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벨뷰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SNU포럼은 주제가 일반 한인들에게도 유용하다고 생각될 경우 공개 강좌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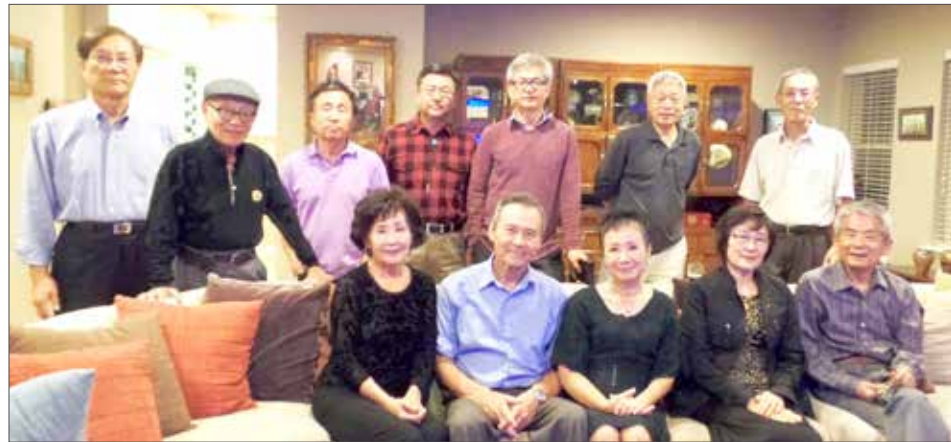
김재훈(공대 72) 회장은 “올해는 뇌 연구와 생명정보, 클래식 음악, 부동산, 드론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열 계획”이라며 “공개강좌일 경우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유용한 정보도 얻고 의견도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부 소개

록키마운틴스Rockey Mountains



Mountain Bells Pikespeak Estes Park Stanley Hotel



#### 1. 지부 역사와 Cover 지역

2003년 1월에 덴버에서 서울대학교 동창들이 모여 제미 서울대학교 록키 마운틴 지역 동창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 지역 동창회는 지역적으로 콜로라도주 및 와이오밍주의 서울대 동문들이 회원이 됩니다. 초대회장 김봉전(공대 68)의 뒤를 이어 김성수(의대 59), 강창운(의대 72), 전남인(사대 72), 표한승(치대 58), 김영일(법대 64) 등 여러 동문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문회는 12/17/2014 에 콜로라도 주정부에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Rocky Mountain Chapter Inc.) 라는 명칭의 Nonprofit Corporation 으로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 2. 활동상황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의 모임은 동문들의 친목을 주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문들의 Picnic, 식사모임 및 정기총회였습니다. 그외에 주제를 가지고 강연으로 한 모임들도 있었습니다.

- (a) 2015 년: 최용문 동문의 “일반인을 위한 컴퓨터 강의”, 송은주 (송요준 동문 부인) “미국 사회에서의 노후 대책에 필요한 정보”
- (b) 2016 년: (1) 송요준 (의대 64) 동문의 ‘일반인을 위한 통증 세미나 (사진 아래 오른쪽)’ (2) 이상준(공대 64, 인천 영정도 공항 설계자)의 ‘인천 국제공항에 얽힌 이야기들’

#### 3. 동창회 멤버는 몇명이고 보통 모이는 숫자는? 연령분포? 확보된 이메일 주소 갯수?

우리지역 동문회원 수는 51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10명은 e-mail 주소가 없어서 제가 우리 동창회 신문을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보내드린 메일이 반송된 것이 없습니다. 통신부장으로서 수고하시는 이희삼 동문 (문리대 68)께서 사진을 첨부한 주소록을 개정하고 계시는데 완성되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 4. 동창회가 설립된 후 이제까지 해 온 일 중에서 자랑스러운 일/동문은? 타 지부에도 권하고 싶은 것은?

- (1) 류광현(문리대 58, philip.rhyu@gmail.com 719-325-9692); 해방교향곡이란 북한의 과거 사실에 근거를 소설을 영문 및 한글로 집필하셨고, 정기적으로 한국에가서 탈북자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계시며 한국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의 주일성교를 매주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게시 때라도) 매주 성교를 도움고 계십니다.
- (2)표한승(치대 58, drpyo@aol.com 303-548-8211) 아직도 덴버에서 치과진료를 계속하고 계시며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 치과진료를 하십니다.

#### 5. 미주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역의 관광명소, 문화/정신적 가치, 교육 역사 등. 이 중에서 특히 지역을 상징하는 단 한가지를 든다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유는?

- (1) 스키장 (Vail, Aspen, Keystone, Steamboat Springs)은 겨울의 스키 이외에도 여름에는 각종 음악회, 전시회, 음식 및 와인 festival 등이 열리고, 또한 이 지역에는 많은 등산길, 자전거 길들이 있습니다. Glenwood Spring 과 Steamboat Spring 지역의 온천은 겨울에 스키를 즐긴 후에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2) Estes Park ; 여름의 down town 은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데 주위의 산행길, 자전거길 승마, 각종 식당 등이 있습니다. 공포 영화의 장소로 쓰였던 Stanley hotel 에서의 brunch 식사도



즐길만 합니다. 고산지대로 백두산 보다 높아 여름에도 눈이 쌓인곳이 있습니다.

- (3) Garden of gods ; Colorado Springs 위치한 300여개의 sandstone으로 이루어진 자연 공원으로 뒷배경에 해발 14000 feet 넘는 Pikespeak 가 보이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중에 하나이며 많은 산 작품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 6. 동창회 운영에 어려운 점?

모임의 활성화 즉 모임이 있을 때 회원의 참여율이 낮습니다. 보통 10여명 모임입니다. 좋은 사례나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7.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회칙에 따른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회원이 참여한다면 좋은 사업이겠지만 저희 Colorado 지부회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이제 막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회장인 제가(최용문 공대 77)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글: 최용문 회장/송요준 (의대 64) 전회장

#### 뉴잉글랜드 송년모임

뉴잉글랜드 동창회 송년 모임이 지난 12월 10일(토) 오후 1시에 보스턴 외곽 렉싱턴 소재 아발론 오티토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연말 월리데이 시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50학번부터 2010학번까지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반가운 만남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두 음대 동문의 모차르트의 ‘바이얼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 ‘k. 423’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만남으로 웅성거리던 활기는 아름다운 선율이 시작되자 안간 처리에 적합한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 〈안건 의결 및 보고 사항〉

몇가지 안건 처리와 보고가 있었다. 임시총회를 겸한 이날 회의에선 박영철 동문(농대 64)이 차기회장(2017년 7월 - 2018년 6월)으로 선임되었다. 박영철 동문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유전학으

\*새로운 동문 명부록 특징

이번 명부록은 별세한 동문들의 이

름도 별세한 일시와 함께 계속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타주나 한국으로 이사한 동문들의 이름도 타주 내지 한국 귀국 날짜를 명시한 상태에서 계속 게재한 점이 특색이었다. 따라서 별세 또는 이주로 뉴잉글랜드를 떠난 동문의 이름이 어느날 갑자기 명부록에서 사라지는 아쉬움을 달래고, 동문들의 추억이 기억되고, 타 지역에서도 교류와 끈끈한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남겨 두자는 취지에서 시도되었다. 앞으로 뉴잉글랜드 동창회 명부록이 이 지역에서 발자취를 남긴 동문들의 흔적 내지 자료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이벤트 시간을 갖고 오세경 동문(약대 61)이 미국에서의 삶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박영철/정선주(간호 68) 부부 동문은 여행에서 얻은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었다. 김문소 동문(수의대 61)이 지난 9월 25일 서울 모교에서 ‘자랑스러운 수의대인 상’을 수상하여 소감 및 감사 인사를 했다.

#### 〈송년 모임 이모저모〉

이번 송년 모임은 예년과 달리 낮 시

간에 개최되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장년층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추운 겨울 늦은밤 운전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였다.

참석 동문은 평년보다 많았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위하여 참가비를 예년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명부록에 수록된 광고를 통해 들어온 수입으로 예년과 별반 차이 없는 한식 부페 식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 모임에서도 몇몇 동문들의 푸드 및 장식품의 도네이션이 있었다: 김진혁(약대 59) 동문은 장식품, 김은한(의대 60) 동문은 보리차, 윤상래(수의 62) 차기 미주 총동창회 회장이 포도주를, 윤용훈(공대 67) 동문은 밥, 이의인(공대 68)동문은 홈메이드 디저트, 김병국(공대 71)/김유경(음대 72) 동문 부부는 커피, 이영인(사대 74) 동문은 밥, 장수인(음대 76) 동문은 과일편지 카테일 음료를 기부해 주어 송년 모임이 보다 화기애애하고 풍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운영진인 이영인(사대 74), 김제성(공대 87), 서병철(약대 90), 나유선(음대 02) 동문이 모임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정태영 회장(문리 71)은 “인터넷 네트워킹으로 가상공간에서는 사회적 외연이 확장되면서도, 정작 고립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훈훈한 face-to-face 휴먼 교감이 갈망된다”며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하여 ‘박쩍박쩍 시끌시끌 봄비는’ 앞문의 모임이 희망된다고 말했다.

#### 〈이사회 개회〉

이에 앞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회칙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중점의 공개적인 의사 수렴 방안에서 탈피하여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는 직접 의견을 묻는 간이 비밀 투표 방식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부회장을 신실하는 회칙 개정안이 찬반 논의를 한 후 간편 비밀 투표 형식의 표결에 부처져 12대 7로 가결되었다(무효 1).

#### 북가주 송년모임

북가주 지부 연말 총회 및 파티가 12월 3일 San Francisco Airport Crown Plaza hotel에서 열렸다. 파티는 Star Power 오의미 (간호73) 제무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향수를 불러오는 교가 제창에 이어 임희례

(간호 73) 회장의 개회사, 민병곤 (공대65) 이사장의 인사말에서는 우리가 지역 만리에서 오래 잊었던 모교 서울대의 선후배 동문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커다란 행운임을 되 새기었다.

총회는 2016년 활동보고로 오픈 골프 대회, 가을 야유회, 당일 연말 파티 상환보고

에 이어 홍경삼 (문리 61) 전 이사장의 흥미진진한 해설이 결승 SNU Hiking Zinfandel Club 활동 보고 겸 slide show가 있었다. 이사회는 또 2017년 부터 산하 독립 위원회로 운영될 전체 활동 분야들을 소개하였다: Membership, Well-being, Hiking, Golf, Harmonica/Ukulele, Newsletter and photograph, Scholarship, Community



service support, Student relations가 포함되었다. 강정수 (문리 61) 동문에게는 2년 연속 오픈 골프 주최로 지부 운영에 공헌 하심에 임희례 회장 명의의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개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었고, 최연장자인 한만섭 (공대49, 사진)동문께서 후배들에게 경이로운 지난 이야기를 해주시는 등, 선후배 교류는 연말 파티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

모든 참석자에게 서울대 로고와 “Northern California”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되었고 탁은숙(문리54) 동문은 두권의 저서 (자서전인 “주 너를 지키라”와 여행기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었다. 이어진 유희에는 송구영신하는 춤과 노래, 리플 티켓 뽑기로 많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두시간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새해 맞을 준비를 하였고 2017년에는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서로 기원하면서 헤어졌다.

글: 민병곤 (공대64) 이사장  
사진: 홍경삼(문리대 61)

뉴욕 이준행 장학금 수여식



지난 12 월 29 일 뉴욕에서 이준행 (공대48) 동문의 ‘준리 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대영(문리대 64) 뉴욕 차기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수여식에는 ‘준리 재단’ 관계자와 가족들이 참석해 5 명의 대학생과 1 명의 대학원생이 각각 \$2500 씩의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이준행 특지 장학금’은 뉴욕지부 서울대학교 동창회 장학금과 같이 수여되어 오다가 지난해부터 ‘준리재단’으로 독립해 따로 수여식을 갖고 있다. 이번 수여식에는 장학생 수를 두 배로 늘려 6 명에게 지급하였다. 이준행 동문은 수혜자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두루 섭렵하여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했다.

뉴욕의 에드워드 강 (사대 60) 동문도 부인과 같이 ‘Edward and In-Aie Kang Foundation, Inc.’를 설립하였다. (www.edwardkangfoundation.org) 이 재단은 올해부터 매년 12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매년 한 명당 \$5000 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회계사로 일하며

“The only things you can take with you when you leave this world are things you have packed inside your heart.”

글,사진:허유선(가정 83) 편집위원

북가주 간호대 송년회



간호대학 북가주 동창회 송년모임이 지난 17일 로스 가토스 김영이 동문 자택에서 열렸다. 20여 명의 동문들은 부

부동반으로 모여 준비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가주 사대 신년회



사범대학 남가주 동창회 신년회가 지난 7일 열렸다. 이날 신년회에는 4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올 한 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교류와 친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 DC 관악세대 간담회



워싱턴 지역동창회는 지난 1월 6일 (금) 비엔나에 위치한 우래옥에서 DC에 위치한 IMF와 World Bank에 근무하는 서울대 동문들(89 - 08 학번)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은행에 근무하는 송윤정 (인문대 89) 동문의 주선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안선미 회장을 비롯한 5명의 임원단과12대 미주총동창회 오인환 전 회장, 그리고 89/90년대 학번의 30/40대 동문들 1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동창모임의 세대별 연계를 위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열띤 토론이 3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그날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면, 먼저 세대별 모임이 조직적으로 구축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지역 동문의 연령분포 자료 정리가 필요하고, 세대별로 임명된 총무들이 의견을 교환하여 단기/ 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송년모임도 각 세대별 모임에서 각 그룹이 발표할 것을 정하고 준비해서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만 젊은 세대의 참석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동문 모임이 동문 간에 상호 유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모교 그리고 고국에 기여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은퇴를 하신 선배들이 후배를 위한 멘토와 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한 경제적 기부와

동문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 (예:동문 웹사이트 운영, 세대별 모임방 구축 등)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동창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학기금 및 어려운 동문과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금 마련 및 재정 관리 구축까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동우회나 취미를 공유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문들과 친분을 쌓아보면 나오고 싶은 동창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Facilitator 역을 맡은 오인환(문리 63) 동문은 간담회를 위한 ground rule 을 소개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했으며 몇가지 첨언한 것은 미국에 사는 서울대 동문으로서 개인차원이나 소규모 차원에서 뛰어 넘어 동창회와 같이 여럿이 모이는 Group 차원에서 Leadership을 생각하고 힘을 키워오면 좋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평소 에 Ivy Leaguers 와 어깨를 겨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했다. 더 자주 만나면 더 친근감이 있는게 인지상정이니 정기적인 만남을 갖자는 의견에 따라 4월 6일 (목)로 다음 모임을 정하고 장소와 시간은 추후 통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2월에 서울대 모교 재학생들 60명이 워싱턴을 방문하는데 World Bank, IMF 등 방문 외에도 워싱턴 선배 동문님들의 경험담과 Q & A Session 을 준비할 예정이다.

글: 한정진 (가정대 87) 편집위원

김정향 동문 개인전 개최 알재단. 2017년 첫 전시

비영리 예술가 지원단체 알재단(회장 이숙녀)이 2017년 첫 전시회로 다루 김정향 (미대 73, 사진)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리플렉션(Reflection)’이라는 주제의 이 전시회는 오는 18일부터 7월10일까지 뱅크오브로프 맨해튼 지점(16 W. 32스트리트)에서 관람할 수 있다.

작년 5월 꽃이라는 매혹적인 형상과 동그라미, 점 등을 주제로 사용해 서정성을 보임과 동시에 논리적인 기하학의 세계를 꽃과 대치시킴으로써 독특한 이중성의 미학을 표현했던 김 동문은 이번 개인전에서는 ‘보이는 것’과 ‘상상’이라는 두 가지 세계의 미학을 빛과 색으로 이뤄진 다채로운 회화작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김 동문은 1977년 모교 회화과를 졸업 후 도미해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85년 뉴욕,

남가주 이사회

지난 1월 19일 ‘작가의집’에서 2016년도 남가주총동창회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민일기(약대 69) 총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사회는 교가제창에 이어, 민일기 총무국장이 이사 정족수 확인절차가 있었고 이어서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김병연(공대 69)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남가주총동창회 역사기록을 완성은 못했지만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별지 책자로 배부한 대로 2016년도의 각종 행사, 회계, 동창회 동문 정보 등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향후 동창회 회계제도, 양식의 표준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춘계야유회, 국악공연 등 새롭고, 보람있는 행사를 많이 하였으며, 동문들의 행사 참여, 후원금 및 회비 등의 자료를 Database화 했습니다.

후원금, 회비 납부리스트를 단대별, 개인별로 작성배포하고 또한 Web site(www.snuasocal.org)를 통하여 총동창회행사를 수시로 홍보하고, 후원금에 세금공제(Tax Exemption) Receipt를 1월에 발송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혜옥(간호대 69) 직전 총동창회장의 지난 해 2016년 1월 13일에 있었던 정기이사회 보고가 있었다. “1)단과대학별 선임이사비 납부책임제 2)총동창회의 부회장은 단과대학 직전 또는 전 회장이 한다. 3)이사회비 및 일반회비 금



액 결정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민일기 총무국장(약대 69)의 다음과 같은 사업보고가 있었다: “2016년도 동창회 주요 활동 상황으로, 신년 해돋이 모임, 신년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역대 회장단 골프대회, 춘계 골프대회, 춘계 야유회, 동창회 기금마련 미대 전시회 및 미술품 경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미주 방문 강연, 성낙인 총장 초청 강연, Holly-wood Bowl 가족의 밤 및 음악회, Mammoth Lakes 가족 Camping, 원로선배 초청오찬, 기부자 및 후원자 감사만찬, 서울대학교 개교70주년 기념 모교 국악과 초청 연주회 등 12번의 큰 행사를 하였으며, 동우회 활동으로 산악회, 산악자전거(철벽지), 서예반, 영화감상반(Cine Club), 낭만산책교실, 합창단, 컬리프라이즈 등의 동우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차기민(공대 85) 재무국장의 재무보고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지난 일 년 동안은 지나간 어느 해보다도 경제활동이 가장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총 \$135,000 수입에 \$125,000 지출로 수입, 지출 총 규모가 \$250,000이 넘는 역동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잔액은 약 \$45,000 입니다.”

그리고 간호대와 법대동창회에서 남가주 총동창회 종신이사제 및 종신회원 납부제 도입에 관한 제안이 있었으나, 차기 회장단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2017년 회장 성주경(상대 68) 동문의2017년 사업계획 발표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전년도에 준한 행사를 지속할 것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제거할 것입니다. 주안사업은 젊은 세대의 참여를 격려하여 동창회를 지속화할 것이며, 젊은 세대 불참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임원진을 70, 80학번으로 구성했으며, 또한 장학사업을 조직화하겠습니다. 또한 회장 임기가 1년이라서, 계속성 여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7 년 수석부회장 선출이 있었고, 박혜옥 인선위원장(직전 회장)의 진행으로, 정관에 따른 후보의 자격 및 심사규정에 대한 설명과 후보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임항균 사대회장이 강신용(사대 73) 동문을 추천하고 특별한 이의 없이 강신용 동문이 선출되었다. 이어 선출된 신임 수석부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단체사진 촬영 후, 기념품 증정으로 이사회가 종료되었다.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남가주 말수회

골프동호회원 말수회의 올해 첫 모임이 1월 25일(수) 아케이드아에 있는 샌타 아나타 골프코스에서 열렸다.

겨울 폭풍 뒤 활짝 갠 날씨 속에 말수회 1년을 여는 자리였다. 2009년 5월 첫 모임을 시작한 말수회는 현재 6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매월 마지막 수요일 4, 5개 팀이 모여 회원 간에 친목을 다지고 있다. 작년 11월 29일에는 20명의 회원이 같은 코스에서 2016년 남회를 가진 바 있다.

최고참 선배들은 “우리는 영어도 안되

고 인터넷도 못해서...”라며 70대 젊은 후배에게 회장 자리를 맡기며 티타임 예약을 자원했다. ‘신이 내린 스코츠’라는 골프의 재미에 내기 골프를 빼놓을 수 없다. 코스 한가득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또 누군가의 포커페이스에는 눈빛만 빛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날 모임에서 김윤호(공대)회원이 9번 홀에서 이글을 하는 행운을 누렸다.

뒤풀이로 푸짐한 요리가 식탁에 오른다. 플레이를 마친 회원들이 골프장 근처 식당에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고, 뒤늦게 도착한 끝들은 스코어 카드에 얼굴을

묻고 손악계산 중이다. 기념사진 셔터를 누르며 모임은 한결 활기를 띤다. 말수회 날 찍은 사진은 그날의 이야기를 담아 다음 날 아침 회원들에게 배달된다. 노선배의 사진 이야기는 말수회의 역사다. 말수회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동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별도의 회비도 없다. 다만 한 달에 한번 수요일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 동문들과 운동을 즐기면 된다. 글: 현기웅 (문리대 64)

강영일 부부 커플전시회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 클루’에서는, 2월 16일부터 28일 까지 ‘Love in Art’ 커플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는 앞으로 계속될 ‘러브 인 아트(Love in Art)’ 시리즈 중 첫번째 전

시이며 동문 강영일(미대 72) 작가와 남편인 강태호 작가의 커플전시회이다. 갤러리 클루의 김진형 관장은, “미술계에는 디에고 리베라와 프리다 칼로, P.S. 크로이아와 마리 크뢰이어,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 등 서로의 작품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한 화가 커플들이 많습니다.

이번 Love in Art 커플전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또 예술적 동지로서 함께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두 커플작가를 모서어 작품 속에 녹아있는 사랑과 교감을 발견해보고자 합니다.”라며 이번 전시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강영일 작가는 서정적인 몸짓을 형상화한 유기체적 이미지에 강렬하고 화려한 색을 입힌 밝고 리드미컬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술평론가인 제임스 스카보로(James Scarborough)는 강영일 동문에 대해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쌓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강영일 작품의 키워드’라고 평가한 바 있다.

강영일 작가의 화폭 속의 형상들은 관계의 결과와 아닌 때로는 짧고 때로는 길기도 한 관계의 과정을 서로 이웃하며 엮고 설린 구도로서 표현하고 있다.

강영일 작가의 남편인 강태호 작가는 디지털 홀수 속에 잠식되어 가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화폭을 통해 풀어 나가고 있다.

중년을 넘긴 화가 부부의 이 커플전시회에서는, 서로 닮은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작가의 원숙한 작품세계를 만나 볼 수 있다. 글: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 소프라노 김성지 동문, 세빌리아의 이발사 주연



소프라노 김성지(음대 92) 동문이 2월 4일 뉴저지 주 'Boheme Opera'에서 공연하는 '로씨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주역인 Rosina로 열연한다.

김 동문은 모교 성악과를 수석 입학 및 졸업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Curtis Institute of Music에 이례적으로 오디션 없이 입학한 전례를 남겼다. 그 후 맨하탄 음대 전액 장학생으로 전

문연주자 과정을 거쳐 뉴욕 국제콩쿨 Liederkrantz com-

petition, Kosciusko Foundation Competition 등에 입상, 카네기 홀 연주를 비롯해 독일, 캐나다, 일본, 한국, 미국 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에 초대되어 뉴욕 필하모니와 함께 '아리랑'을 연주했던 거장 Lorin Maazel과 그가 주최한 Castleton Music Festival에 초청받기도 하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주최로 개최된 독일 베를린 평화음악회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작년에 뉴저지 Rutgers 주립대에서 성악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동문은 '제게 귀한 목소리의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평생토록 찬양드리며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마지막 삶의 목표'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인사를 미주 동문들에게 전해 왔다: "반갑습니다! 저는 92 학번 성악과 김성지입니다. 졸업 후 필라델피아에 있는 커티스 음대로 유학을 오면서 도미한 후 벌써 20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여기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든든한 서울대라는 뿌리



가 있음에 감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단지 최고가 아닌 최선의 모습으로 한 동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웹사이트: www.sungjikim.com  
www.bohemeopera.com

## 고태화 동문 ‘올해의 작가전’에 초대

릴랜드 미대의 플래처 매키 교수가 심사했다.

‘올해의 작가전’에 선정된 고태화 동문의 작품은 전통적 관화 기법을 사용해 얇은 종이에 이미지를 찍고, 이 종이들을 겹겹이 쌓고, 접고, 연결하며 줄기, 세포, 씨앗 등 자연의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만든다. 고태화 작가는 모교 미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관화와 조각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 동문은 국제 프린트 센터 뉴욕, A.I.R. 갤러리, 알링턴 아트센터, 워싱턴DC 플래시 포인트 갤러리 등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져 왔다.

고 동문은 “항상 열정과 노력으로 모범이 되어주시는 선배님들과 전시 소식을 나누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라는 인사를 본 동창회보에 전했다.

전시 개막 행사는 2월 3일(금) 오후 6시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다. 참가는 무료이나 워싱턴 한국문화원 홈페이지(www.koreaculturedc.org)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202-587-6163



설치미술가 고태화(미대 92) 동문의 ‘수상한 성장, Suspicious Growths’ 전시회가 워싱턴 한국문화원(원장 박명순)에서 2월 3~24일 ‘올해의 작가전’으로 개최한다.

‘올해의 작가전’ 시리즈는 매년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시작가 공모 프로그램 ‘오픈 풀 아티스트’에 응모한 최상위권 작가 1인을 선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심도있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필립스 컬렉션의 크라우스 오토만 큐레이터와 메

## 최진훈 동문 ‘산을 향해 눈을 드니’출간 교회음악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



내과의사 최진훈(의대 64) 동문이 자신의 칼럼 모음집 '산을 향해 눈을 드니'를 출간했다.

최 동문은 1970년대 초부터 뉴욕에서 개업의로 자리를 잡았으며 또한 '코리안챔버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이끌어온 음악인으로서 이곳 한인 커뮤니티에 잘 알려져 있다. 최 동문은 이번 책에 교회의 고전 성가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쓰고 있다.

처음 뉴욕 브롱스교회에서 오르간으로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기 시작한 최 동문은 줄리아드 스쿨에서 4년간 유케스트라 지휘 수업을 하고, 최근까지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해 오며 뉴욕에서의 50 여년을 음악과 함께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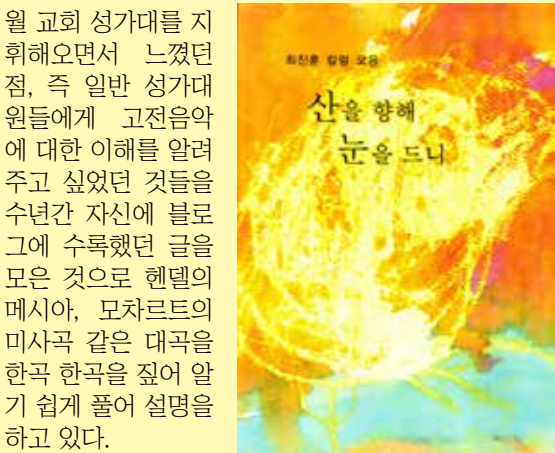
유치원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운 최 동문은 모교 의대 시절부터 서울 의대 오케스트라와, 서울대 팜스 오케스트라에서 프랜지 지혼을 연주하기도 했다.

1987년에 창단된 뉴욕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는 10여년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씩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올 정도로 최 동문은 음악애의 열정을 지니고 있다.

웨체스터 올드타이머로 오랜 기간 아즐리에 거주해 오고 있는 그는, 현재 의료나 지휘 일선에서 반 쯤 은퇴했지만 그 열정을 식히지 않은 채, 음악에 대한 책을 펴낸 것이다.

그동안 일간지나 잡지에 칼럼을 써 온 그는 지난 2004년에는 칼럼 모음집 '벼를 향한 소리'를 펴냈으며, 주로 의학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담았었다.

그가 이번에 펴낸 '산을 향해 눈을 드니'에는 오랜 세



이 책에는 교회 성가대 또는 교회 음악, 그리고 교회음악의 세대차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등도 수록되어 있다.

## 이영목 동문, '문학의식 작품상' 해외부문 수상



제 8대 미주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이영목(공대 58) 동문이 '제 6회 문학의식 작품상' 해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작품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한 해 계간지인 '문학의식'에 발표한 여러 장르의 신작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작품 중 이 씨의 희곡 '해조음'을 '해외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지난 31일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이영목 동문을 대신해 경희대학교 미대 이문성 교수가 상과 상금을 받았으며 상금은 이 동문의 뜻에 따라 문학발전기금으로 기부됐다.

이영목 동문은 수상소감에서 "나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에 대한 상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

겠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미주총동창회장, 워싱턴지부 동창회장, 워싱턴 문인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워싱턴의 도박꾼' 등 3권의 소설과 수필집 '워싱턴에서 살며 사랑하며', 여행기 '길에서 나를 본다'를 펴냈다.

## 백순 동문, 네번째 시집 ‘징검다리’ 출간



시인 백 순(법대 58) 동문이 최근 시집 '징검다리'를 출간했다.

2015년 연말 펴낸 '워싱턴 광장에서 시편을 읊으리라'를 비롯 '그래도 주님 사랑 넘치면'(99),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은혜의 눈송이를'(2005)등 세 권의 신간시집에 이은 네번째 시집이다.

시집은 순결의 무게, 그루터기, 천지창조, 눈물의 강 흐르게 하소서,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다. 징검다리 등 총 6부로 구분돼 '포도맥 강 범비', '떠나야겠다', '눈물의 강 흐르게 하소서', '아나폴리스 모래사장', '봄의 슬픔', '봄은 멀구나', '봄의 잔치', '봄의 소리', '2월 달무리',

'초여름 바람', '여름의 광명', '울음과 나뭇잎의 열매', '겨울 하늘과 찬바람', '빙산의 웃음', '순결의 그리움'등 72편의 근작시로 꾸며져 있다.

백 동문은 "이국땅에서 부딪쳐야 하는 미국이라는 개울을 한글의 징검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모습이 미주 한인 1세대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문학작품이 시라 생각한다.

그렇게 틈틈이 모아 두었던 내 정체성의 모습을 담은 시편을 엮어 세상에 내어 놓는다"고 말했다.

본 미주동창회보 주필을 지낸 백 동문은 모



교 법대와 고려대 경제대학원을 거쳐 오하이오대와 웨스트버지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한 후 연방 노동부 선임학자로 28년간 근무하다 은퇴, 워싱턴 버지니아대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조선문학, 자유문학, 화백문학 등을 통해 등단했으며 '형이상학 시인론'(2007), '미국계관시인론'(2014), '영국계관시인론' (2014) 등 세 권의 시 평론집도 펴냈다.

## 이태상 동문, ‘코스모스 시리즈’ 완간

이번에 나온 '여레인보우 시리즈' 여섯번째 에세이집 '생의 찬가'는 그동안 써온 18 권(영문판 한 권과 역서 4권 포함)의 '코스모스 시리즈'의 최종 완결본으로 그 배경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

다. 고테가 그의 나이 24세에 쓰기 시작해 82세에 마쳤다는, 58년에 걸친 희곡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하는 마지막 독백 "오,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를 나는 내 나이 23세에 시작해 80세에 마치는, 57년에 걸친 나의 신곡(神曲)이 아닌 인곡(人曲)인 '코스모스 시리즈'를 나의 독백 "야, 코스모스, 넌 정말 아름답구나!"로 끝맺는다.

1959년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나의 첫사랑 '코스모스'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단테의 '신곡(神曲)'에 대한 답례로 바치는 이 '코스모스 시리즈'는 1961년 2월초 마지막으로 만나 보고 헤어진 후 지난 55여년 동안 날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쓰게 된 것으로 10여권의 이 책들을 내 생전에 코스모스님에게 보내드리 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다.

그러다 그야말로 지성이면 감천인지 기적처럼 여러 해를 두고 찾아온 코스모스님의 소재를 지난 9월에야 비로소 알게 되어 내 책들을 우송해드렸다. 이것만으로도 내 평생소원이 이루어진 셈이고 내 책들을 읽어주셨다는 짧은 한마디 답장이라

도 받을 수 있다면 나로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죽기 전에 단 한번 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어 회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설혹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한없이 감사할 뿐이다.

나이 아홉 살 때 여덟 살짜리 비아트리체를 만나 이 소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24세에 죽었지만 잊지 못하고 '신곡(The Divine Comedy)'을 쓰게 된 단테 같이 나도 이루지 못한 나의 첫사랑 때문에 나의 '인곡(The Human Comedy)'을 쓰게 된 것에 빗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보람되고 행복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이태상 (문리대 55)



## 2월 달무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르막 내리막 길  
대보를 달무리가  
춤춘다

삶의 길  
오르막내리막  
달무리따라  
춤쭈듯 뒹고 있다  
오르막길 달무리  
부름 잦 불을 짚어  
사나이의 꿈을 밝혀 주신  
어머니의 바라보시는 얼굴

내리막길 달무리  
풍성한 부름상을 차려서  
사람의 평강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의 호뜻하신 얼굴



백순(법대 58)





장동만 (문리 55)

## 선진 한국 - 부끄러운 민낯 (상)

단군 역사 이래 최상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오늘의 한국,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質) 만족도는 조사 대상 145개 국 중 117위 (미국 갤럽 조사 ‘2014 세계 웰빙 지수’), 내전 중인 이라크나 남수단 보다도 낮은 세계 최 하위 수준이다. 그 이유/원인에는, 첫째 사람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 사는 환경 즉 오늘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그 원인이 있겠는데, 특히하면 세계 최초/최고/최상을 자랑/지부하는 그 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왜 선진국 진입을 못하고 그 문턱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지,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 몇 가지를 세계 유수 연구/조사 기관 통계를 바탕으로 두 번에 걸쳐 들추어 보기로 한다.

### 1) 정부/국가 신뢰 (지수) 23%-

한국 사람들은 정부/ 국가가 하는 일 (공권력)을 얼마나 신뢰할까?

유감스럽게도 4명 중 1명만이 정부를 신뢰한다. OECD 가 2014년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 (Better Life Index)’ 에 따르면,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한국의 경우 시민 23% 만이 정부를 신뢰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29위로 OECD 평균치 39%보다 16%나 낮았다. 이는 36개 조사 대상국 중 사실상 꼴찌에 속하며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는 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회 통합과 (시민의) 복지/안녕 (Well-being)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사람들이 국가를 가장 신뢰 하는 나라는 스위스로 77%의 신뢰율을 기록했고, 룩셈부르크가 74%로 2위, 노르웨이가 66%로 3위를 차지했다

한편 2015년 8월 9일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 (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 권인 26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PIGS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리는 재정 위기 국가들이다. 이탈리아 (31%)를 비롯해 포르투갈 (23%), 스페인(21%), 그리스 (19%) 등이 하위권이다.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또다른 국가별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흥보 기업 에델만 의 ‘2015 에델만 신뢰 바로미터’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신뢰도는 39%로 조사 대상국 27개국 가운데 17위 였다. 아랍 에미리트(89%)와 중국 (85%), 인도 (85%), 인도네시아 (73%), 싱가포르(68%), 네덜란드(67%) 등이 높은 정부 신뢰도를 보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한국은 개발 도상국인 인도 (2위) 인도네시아 (5위), 러시아 (6위), 터키 (9위) 등의 나라보다 낮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체코가 한국과 같은 26위였고, 한국의 바로 아래 순위는 멕시코(29위)다. 이탈리아 (31위), 포르투갈 (37위), 스페인 (39위), 그리스 (40위)등 재정 위기를 겪고있는 나라들이 하위권이었다.

### 2) 사법 (제도) 신뢰 지수 27%-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유행하는 나라, 시민들은 한국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할까?

한국 사람들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조사 됐다. 2013년 기준, 사법 신뢰도는 27%로 OECD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39위 (뒤에서 4번째) 였다. 한국보다 밑에는 콜롬비아 (26%, 2014), 칠레 (19%, 2013), 우크라이나 (12%, 2014 ) 등 3개국 뿐이다. 한국보다 한 계단 아래인 콜롬비아는 아직 좌익 반군과 마약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다. 개발 도상국 가운데 인도 (7위), 인도네시아 (21위), 브라질 (28위), 멕시코 (29위), 러시아 (31위) 등은 한국 보다 순위가 높았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사법 제도 신뢰도는 54%다.

### 3) 국가 청렴도 지수 37위-

한 때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지녔던 한국, 요즘은 부정 부패가 얼마나 나아졌을까?

일본의 NHK가 비리 척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기구 NGO가 발표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청렴도 순위’를 금년 1월 26일 보도했다. 독일이 본부인 NGO 「국제 투명성 기구」 는 국제기관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2016년 한국은 176개 국가 중 52위로서, 지난해 37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다.

NHK는 “한국의 수많은 비리가 밝혀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각종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고, 법적 국가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로 퇴행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보도했다. 2016년 1위는 뉴질랜드와 덴마크, 최하위는 소말리아라고 전했다.

2015년,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투명성 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한국 본부인 한국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집계 결과, 10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에 한국이 56점을 받아 순위는 168개 조사 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체코 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 (91점)·핀란드 (90점)·스웨덴 (89점)·뉴질랜드 (88점)가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85점)·홍콩 (75점)·일본 (7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CPI는 공공 부문 및 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TI에서 1995년 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 4) 사회 갈등 지수 OECD 5위-

빈부 갈등,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 하루도 쉬지 않고 각종 갈등, 마찰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갈등 지수는 얼마나 될까?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이 2015년 3월 24일 발표한 ‘사회 갈등 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회 갈등 지수는 1.043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갈등 지수는 사회 갈등 ‘요인’ 지수를 사회 갈등 ‘관리’ 지수로 나눈 값으로, 사회 갈등 요인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 갈등 관리 지수가 낮을수록 이 값이 커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요인은 많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사회 갈등 지수는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요인’ 지수는 0.396으로 34개국 중 4위였다. 칠레 (0.594)가 1위, 이스라엘 (0.467)이 2위, 터키(0.443)가 3위 였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스페인 (0.363)과 포르투갈(0.363), 그리스(0.353), 영국(0.347), 미국(0.317) 순이었다.

사회 갈등 요인 지수는 정치적 갈등 (공공 서비스의 정치적 비독립성, 정보 접근 제한, 언론 자유 제한 등)과 경제적 갈등 (소득 불평등, 소득 분포), 민족 문화 갈등 (인구 이질성), 인구 스트레스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우리보다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국가는 터키 (2.940)와 그리스 (1.712), 칠레 (1.212), 이탈리아 (1.119)였다. 포르투갈 (0.893)과 이스라엘 (0.849), 스페인 (0.742)이 우리나라 뒤를 이었고, 미국 (0.581)은 12위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관리’ 지수 (0.380)는 조사 대상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었다. 갈등 관리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 (0.923)와 스웨덴 (0.866), 핀란드(0.859) 등이었고, 일본 (0.569)은 18위, 미국 (0.546)은 20위였다. 연구원은 또 사회 갈등 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증가했는데, 갈등 관리를 10% 높일 경우 1인당 GDP가 1.75~2.41%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함께 내놓았다.

이어 연구원은 “우리 나라의 사회 갈등 수준은 조사 대상국 중 매우 높은 편이었다” 며 “갈등 관리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속)

〈특집〉

## 미국 와서 배운 첫번째 교훈

### 美國－最古, 最高の 文明 위에 건설된 最新の 國家



이석호 (공대 66)

나는 미국에 올 당시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편견이란 것은 미국은 백인들이 미주 원주민들을 총으로 마구 쏘아 죽이고 빼앗은 땅 위에 아프리카에서 납치해 온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서 단 시일 내에 완전 독립으로 건설된 나라이고 그렇기에 풍부한 물질문명 이외에 문화라고 불릴만한 아무런 정신적인 자산이라고 없는 천하 쌍놈들의 나라라는 선입견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가면서 차츰 나의 이러한 편견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편견에 가장 큰 수정이 가해진 것은 미국에 오고 나서 십 년쯤 후에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 록을 보았을 때였다. 미국인들은 역사가 짧아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문화적인 자원이 없기에 이따위 바윗덩이도 중요한 역사적인 유물로 여겨진다고 하면서 중궁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 지천으로 널린 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건물과 조각품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온 다른 한국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나는 생각이 달랐다.

만약에 수만년 전에 다녀간 것이 분명한 유구인들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중생대에 형성된 공룡들의 발자국과 같은 수준에다 놓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는 사슴 가죽을 두르고 돌도끼를 들고 통나무를 타고 표류해 온 것이 아니었다. 당시까지는 최신에 항해 수단이라 할 만한 帆船을 타고 온 콜럼버스의 손에는 그때까지 인류가 태곳적부터 쌓아온 문명의 정수와 할 만한 총과 나침반이 들려 있었으며 콜럼버스의 머릿속에는 인류가 그때까지 쌓아온 수학과 과학의 지식이 가득 들어 있었다.

더우기 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사실은 창세 이래로 축적된 인간의 생존의 노하우가 모두 담긴 聖經이 콜럼버스의 선장실에 항상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류 사대 문명의 발생지에서 나와 수천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의 주민들에 의해 갈고 닦이며 축적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essence 위에서 시작된 나라이기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 록이라는 저 작은 바윗돌을 결코 구 대륙의 피라미트나 타지마할 보다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다는 것을 콜럼버스 후에 메이 플라워 호를 타고 와 선대륙에 내리자마자 그 바위 위에 었드려 기도했던 그 필그림이 서 있었던 문명적 좌표를 생각할 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두 아들에게 가끔 말해준다. “美國은 人類가 世界 最古, 最高の 정신적, 물질적 文明 위에 舊大陸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건설한 最新의 國家이다.”라고.



정선주 (간호 68)

며 말을 걸어오곤 했다. 나는 내 이름을 왜 Doing 이라고 부를까 하면서 혼자 말 못할 고민을 했다.

그 당시 문리대 안에 있는 어학연구소에서는 서울대 전교 3, 4학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미국인강사가 유학 갈 학생이나 교수들을 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있어서 나도 열심히 2년을 수강을 하고 TOEFL 성적도 높다고 기가 살아서

### 100 vs 0

미국에 처음 와서 Teaching Assistant, 조교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회로〉라는 학부 2학년 과목이었는데 첫 시험을 치른 후 제가 돌던 미국 교수님이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채점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도 조교라는 걸 해 보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꺼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던 대로 채점을 하고 답안지를 들고 교수님 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벌써 다 했나? 그런데 반 평균이 얼마나 되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뭇머뭇 거리며, “네, 반 평균이 35점인데요.” 라고 말씀 드렸지요. 그랬더니, “뭘, 35점?”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 “내가 좀 보자.” 그러면서 제가 채점한 답안지를 받아 들고서 한 장씩 넘겨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웃으시며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미국에 왔는데 이곳은 미국 오기전 배우고 온 실력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감히 그래도 그당시 서울대를 졸업하고 당당히 대학원생으로 유학왔는데 내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다니? 나는 How are you? 로만 배우고 들었지 한번도 How are you doing? 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미국땅에 와서 겪은 나의 비밀을 오늘 실토해 버린다.

바보가 되어버린 경험이 나를 채찍질하여 미국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포용과 flexibility 를 얻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준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며 이제는 하하하 웃어 본다. 이 순간 나는 India 에서 15일을 지내면서 이 글을 쓴다. 같이 여행하는 여행자들과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얘기하며 내 얘기를 했더니 모두들 크게 웃었다. 이제는 다들 어른이 된 우리집 아이들과 손자 손녀 앞에서 이런 경험을 밝힐 날이 있을 것 같다.

예요. 아시아권에서 온 조교학생들에게서 이런 일을 보게 된다고 하면서. 즉, “지금 자네가 채점한 건 학생 누구에게나 우선 0점을 주고 채점을 시작한 거네. 각자가 얼마만큼 답을 썼는가? 하는 데 따라 10점도 주고 20점도 주고 30점도 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반 평균이 35점 좀 된 거지.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100점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얼마나 부족한가에 따라 10점을 감점하고, 20점도 감점하고, 그러ندا. 그러니 다시 채점해 보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채점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져갔더니 “이번엔 몇점이나 되냐?” 라고 물으셔서, “네, 72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며, “그렇지, 아마 그 정도 될 꺼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첫 교훈입니다. ‘불신으로 시작하기보다 신뢰로 시작하자’ 라는 이 교훈을 가지고 이제껏 살고 있습니다.

김정현 (공대 68)

나라), 혼계할 땐 반드시 아이에게 자신이 왜 혼계를 받는지 이해시킬 것’ 등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중에서 내게 오래도록 생각게 한 것이 ‘아이는 이 땅에서 꽃 피울 씨앗을 품고 이 땅에 보내졌으니, 부모는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영양을 주고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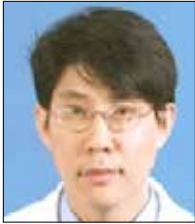
어려서부터 공부만 하고 공부 잘해서 법조인이나 의사, 교수와 같은 전문가가 되는 게 제일이고, 절대로 위험하고 좁은 길은 피하고 평평한 대로의 제일 안전한 가운데 길을 걸어가라고 듣고 자라온 내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아마마다 각자 전 씨앗은 무엇이었을까?, 나 자신도 모르는 내가 아이의 씨앗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전 바람 오바마의 고별 연설전

을 보았다. 그의 글과 연설을 좋아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의 연설을 모두 찾아 들었었다. 그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아버지로부터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바락 오바마’라는 괴상한 이름을 지어준 자신의 부모님의 용기와 지혜, 인도네시아에서 살 때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겨우 여섯 살 난 자기를 새벽 네시부터 세시반쯤 영어를 가르친 후 출근한 그의 어머니, 온화한 성품이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지만 그녀를 폭발케한 것은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그녀의 그러한 가치관이 자신에게 심어져 자신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고, 그는 그의 글과 연설에서 여러 번 그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을 했었다.

백일잔치를 한국에서 하고 이 땅에 온 내 첫아이가 이제 고3이 되어 대학 원서를 마쳤다. 입시준비를 위해 참석한 학부모 강좌마다 강조한 것이 아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지, 스스로를 아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내 아이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자아의 정체성을 알고 이 땅에서 자신만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기도한다.





**[연강]**  
**산모 혈액으로 태아 ‘점돌연변이’ 진단**

산모의 말초 혈액만을 이용해 배속 태아의 사소한 돌연변이까지 진단할 수 있는 산전 진단법이 개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의대 91) 교수 연구팀은 소량이지만 태아의 DNA가 존재하는 산모의 혈액과 최신 초미세 DNA 증폭 분석기술인 ‘Picodroplet Digital PCR’의 기술을 접목해 산모에게서 채취한 말초 혈액에서 점돌연변이 질환인 유전성 난청을 태아가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아의 유전성 질환은 조기에 진단해 치료해야 함

에도 태아 손상 유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최근 산모의 말초 혈액만을 이용해 진단하는 비침습적 산전 진단법이 개발됐지만 이 진단법은 주로 염색체 이상 같은 심한 돌연변이의 진단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최 교수팀이 개발한 산전 진단법은 산모의 말초 혈액만을 이용해 태아의 점돌연변이 질환까지 진단할 수 있다. 새 검사법은 단순 혈액 제공만으로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침습적 검사에 비해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거의 전무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인 임신 7-10주 경부터 검사가 가능해 더 빠른 시기에 진단도 가능해졌다.

또한 최신 기술인 Picodroplet digital PCR을 이용해 기존 검사보다 해상도가 월등히 높아 염색체 수 이상과 같은 큰 이상은 물론 유전자의 미세한 점돌연변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가능해졌다.



## [미국에서 배운 교훈]



**김수영 (사대 57)**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고유 민요로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애창곡이다. 하지만 내가 낯설고 물 선 이곳에 와서 아리랑 민요를 목청을 돋우어 힘껏 불렀다가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있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란 말이 나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 나에겐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리랑’ 민요였다.

미국에 이민 온 지도 올해 34년이 되었지만, 이곳에 와서 다시 뿌리를 내리면서 잘 살아가기가 처음에는 적응이 잘되지 않아서 참 힘이 들었다. 언어, 문화, 자라온 환경이 달라 적응을 못 해 역이민 가는 가정이 종종 있는 사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을 때 역이민 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이민 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 좋은 직장을 갖게 되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인종 전 시장 같았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다. 직장 가는 것이 즐겁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 협력하며 능률적으로 일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일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쳐 주치의가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되고 가벼운 일을 해야 한다는 의사전단서를 써 주었다. 나의 상관이 진단서를 보더니 아주 가벼운 일만 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 나와 함께 일하는 필리핀 독신 동료야 내가 할 일까지 자기가 다 맡아서 해야 한다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나를 함담하기 시작했고 상관에게도 내가 일하기 싫어 꺾병한다며 고자질을 해 나를 골탕먹이고 있던 어느 날 하루였다. 직장 안에 있는 광고판에 나의 이름을 끄는 광고가 큼직하게 나붙어 있었다.

“다민족 문화 잔치(Ethnic Diversified Culture Festival)”를 1982년 5월 4일 개최하니 자기 나라의 고유문화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상호협력과 상호공존의 변역을 누리어 직장 분위기를 화해와 화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문화잔치’라 나에겐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나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생활습관이 달라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 분쟁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었다. 직장 당국에서는 중재자를 내세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있었다. 일의 능률을 올리고 효과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잘 처리하려면 일터의 분위기가 좋아야 하므로 직장 당국에서 개발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나에겐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출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이 기회에 조국의 문화를 알릴 절호의 기회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여하고 싶은 생각에 흥분하기 시작

# 아리랑 판타지아

했다. 막상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으나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나는 아리랑 민요와 함께 한국 춤을 보여줄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아리랑 민요곡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선정 등재된 바가 있다. 아리랑 민요는 우리나라 서민의 고요한 정서와 애환을 그린 민요로서 노랫가락이 구슬프고 구성지고 아름답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잔잔한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쉬운 곡이라 내가 연습만 하



면 얼마든지 대중 앞에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래만 부르기에는 너무 밋밋해서 노래와 함께 한복을 입고 춤도 곁들여 추면 어떻게 생각해 보았지만 한 번도 춤을 배운 적도 없고 대중 앞에서 추워 본 적이 없는 내가 가능한 일일까 하고 걱정이 앞섰다.

나는 전문 춤꾼처럼 춤을 못 추어도 아리랑 노래에 장단 맞추어 자연스레 그냥 어깨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기로 마음먹고 직장 갔다 와서 노래연습에 몰두했다. 원래 음치였던 내가 ‘문화잔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결단이었다. 어쩔 수 없이 직장 분위기가 나를 궁지로 몰아넣자 궁여지책으로 참작하기에 이르렀다.

나와 함께 일하는 필리핀 독신 남성이 나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내가 자기를 ‘인종차별’ 한다고 직장 당국에 고발을 해 놓고 나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인종차별 한 사실이 없으니 무죄를 밝히겠지만, 판결이 끝날 때까지 불려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었다. 이 ‘문화잔치’가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참여함으로 필리핀 남자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가 솟아났다. 관객이 한국사람들이면 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영타리 춤이란 것을 알고 또

복 절도를 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모두 외국사람들 앞에서 주는 한국 춤이라 잘 못 추어도 잘 추는 줄 알고 박수를 보낼 것이기에 별로 걱정은 안 되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잘 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연습은 계속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다. 나는 아무도 초청을 하지 않고 가족들만 초청했다. 심어 개국이 넘는 다민족 문화를 감상할 기회였지만 다른 사람 공연에는 관심이 없었다. 내 차례를 기다리며 가슴만 뛰고 있었다. 관람객들은 모두가 직장 동료들이고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한국 사람이라고는 다행하게도 우리 가족뿐이었다. 자녀에게 내가 아리랑 민요와 한국 춤을 춘다고 하니 자녀마저 호응을 안 해주고 농담으로 여기니 과히 내 노래 솜씨와 춤솜씨가 어떠하다는 것이 짐작이 갔다. 민진 말진 명석은 깔렸으니 내 차례가 오면 한바탕 그동안 뒀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리라고 다짐했다.

드디어 내 공연 차례가 오자 두근 반 서근 반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이름과 출생국을 밝히고 아리랑 민요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곁들여 한국 춤도 춘다고 인사를 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노래도 연습한 것만큼 나오지도 않고 춤도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려 유연한 춤을 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앙코르를 부르며 박수갈채가 터져 오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외의 반응에 눈물이 왈칵 치밀어 올랐다. 망신을 한 줄 알고 나 자신에 실망하고 있었는데……주저하고 있으니가 나중엔 기립 박수갈채가 쏟아지면서 앙코르를 계속 불렀다. 나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번엔 정말 잘 불러보리라 생각하고 떨지 않고 침착하게 또 한 번 불렀더니 장내가 터지라 손뼉을 쳤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만 연발하면서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로 다가와서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며칠 휴가를 내어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직장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다. 나를 괴롭히던 필리핀 남자가 찾아와서 깎듯이 악수를 청하면서 수고했다고 칭찬했다. 아리랑 민요곡조가 매우 아름다워 자기 조국이 생각났으며 아리랑 민요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서 죄송하다며 ‘인종차별’ 고 발한 건은 다 취소할 테니 앞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자며 환하게 밝은 웃음을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긴장이 확 풀리고 직장 동료와 잘 어울려 일할 수 있었고 조소나 한국을 알릴 수 있어서 여간 기쁘지가 않았다. 휴식시간마다 휴게실에서는 한국의 아리랑 민요 노랫소리가 은은히 흘러나왔다. 배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의 이민 초기의 드라마는 ‘아리랑 판타지아’로 클라이맥스의 팡파르를 울리며 막을 내렸다.



**[박상희 겨울서신]**

**나의 애인 대한민국아!**

어느새 1월은 무섭게도 우리를 누르며 무겁고 불확실한 꿈, 희망 하나 남겨두고 떠났다고, 그렇게 푸념 비슷하게 하며 그대와 마주합니다.

오세영 시인은 ‘별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이미 없을 것이라고 2월이란 시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2017 해의 1월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참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달, 기다림 만 남아, 다만 인간의 가장 순수한 무릎만을 요구한 달이었다라고,

그런데 그 1월도 훌쩍 떠나고 우리에게만 타작을 기다리는 산더미 같은 날만만이 남았네요. 부끄럽게도, 아니,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 그만 두라고요? 시만 말해요. 당시는 시인이니, 시만, 아름다운 시만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편안하게 닦아주는 시만, 그러나 시인의 시는 어디서 배워드나요? 또 전 말해야겠어요. 시인은 자신에게 정직해야하고 진실해야하고, 진실과 정직하지 못할 때 시인은 시인의 자리를 떠나야한다고. 그리고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해 시를 말할 수 없을 때 시인은 침묵해야하는 그것이 시인의 운명이라고.



**연봉원 (문리 61)**

**변호사 매매 (賣買)**

청운의 뜻을 품고 브라질에서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나의 (氣)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았다. 더군다나 한국인에게 거의 전언무답의 법률계에 낯설고 물설은 땅에서 이론 성과이니 말해 무엇하랴? 합력동지서를 부모님에게 바치니 아버지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시고 어머니는 기어코 우시고 만다. 전 가족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 나도 덩달아 붕 떠있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되었다는 자긍심은 개업 첫날에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첫번째 손님이 자기 케이스를 말하다 말고 “사람들이 변호사를 잘 사야 승소한다고 해서 연 변호사님을 찾아 왔습니다” 하는 것이다. 나는 하도 놀래서 내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었나 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했더니 변호사 잘 사야 승소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를 돈 주고 산단든가 옛날에 노예나 종을 사고 판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어도 변호사를 돈 주고 산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 때만 해도 한국인에게 변호사는 선망의 직업인데, 언제부터 한국인에게 변호사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당한단 말인가? 그 다음부터 탄 고 객에게서도 비슷한 소리를 수 없이 듣고는 변호사란 직업에 회의까지 들었다. 한국에서 직업에 “사”자 들어가는 신랑감에게는 신부 측에서 열쇠를 적어도 3개는 준비해야 된다 운운 하는 이야기는 전부 헛소리인가? “사”자 직업에서 변호사는 빠지는 것인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 고3이 되니, 어느 대학 무슨과

**나의 애인 대한민국아!**

기다림, 2월의 가슴 저려오는 기다림, 깨인의 기다림이 아닌 보다 큰 아주 큰 대의의 기다림을 얹은 우리, 고개를 돌려도 파도는 거친 자갈돌만 실어 나르고, 그러나 더 따뜻한 바람, 보다 인간다운 바다의 물결소리가 봄의 바람을 등에 업고 오기를... 어느 아침 나는 잔디를 뽐는 잠에서 눈을 떴어요...그것이 시가 되어 부끄러운 시 하나 결국 띄우게 되네요.

이 졸시를 퇴고하는 날 때맞추어 하늘에서 눈이 참으로 곱게 내려왔어요. 그것을 어쩌면 시인에게만 때 맞는 기적 같은 축복이라고 말 할 수 있을는지요...

그러나 보다 절실한 시를 쓸 수 없었음에 사과를 드리며, 1980년대 조국을 향하여 한권의 시집으로 그 아픔을 함께하려고 했던 그 때의 그 시집처럼 나는 여전히 등허리 털 끝은 시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되기를, ‘2월의 기다림’으로 뉴욕의 후라싱 동구 밖에 서서 이마에 손을 올리고, 더 큰 위로의 시인이 되지 못함을 사죄하며...갔듯 블래스 코리아 앤 아메리카! 어두...

를 개업했다.

한 20년간 브라질에서 변호사를 잘 하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늦깎이로 미국에서 다시 로스쿨을 하고 뉴욕 변호사가 되었다. 나의 고객은 대부분 남미 히스패닉이고 그 중에도 브라질 사람이 반 이상이다. 이민법을 하게된 이유는 브라질에서도 많이 하던 일이고 남미 사람 대부분이 신분문제가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민법은 연방법이라 미국내 어느 주에서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고객은 여러 주에 분포돼 있다.

몇달 전, 주말에 뭐 할거냐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토요일에는 뉴저지에 사는 브라질 사람 집에 가야 되고 일요일에는 커넥티컷 주에 있는 손님 집에 들려야 한다니까 우리 어머니 왈 “기적 변호사가 돼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이 집에

이혼이나 유언장 작성할 분 없습니까 하고 다니니?” 하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 니가 서울에서 의대 가라고 했더니 앞으로 한국 의사는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주사 맞을 사람 없습니까 하고 했잖아?” 하신다. 얼마나 말이 섬세하셨으면 50년이 지나서도 그말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게 복수(?)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를 산다’는 한국어 표현이 아주 불편해 되겠다는 것을 알고난 후 선망의 변호사란 직업이, 창녀나 기적 잘해야 머슴 취급 당하는 한국적인 표현이 원망스럽기만하다.

자조지종은 어떻게 됐던 나는 오늘도 나를 팔려고(?)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신세다.

**공고**

**제 26차 미주 평의원회의**

**일시: 6월 23일 – 25일**  
**문의: 윤상래(978-835-0100) 이상운(508-251-9691)**  
**장수인(978-264-2988)**

**Hotel: Hilton Boston/Woburn**  
**2 FORBES ROAD, WOBURN,**  
**MASSACHUSETTS, 01801, USA**  
**Tel: +1-781-932-0999 / Fax: +1-781-932-0903**  
**www.bostonwoburn.hilton.com**  
**예약마감: 5월 23일, 화 (\$119 King Bed / \$129 Double bed/night)**  
**(2017년 5월 23일까지 예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할인 가격이 적용됨)**  
**Group Nam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EVENT**  
**Group Code: SE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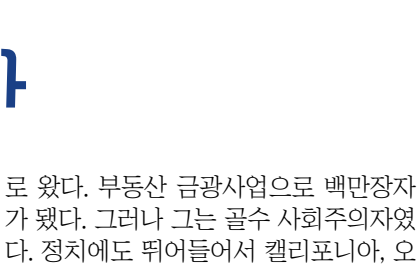
김지영 (사대 69)

“정말? 윌셔는 길 이름인데”

LA 다운타운에서 시작해 태평양 연안의 샌타모니카 비치까지 15.83마일의 동서대로, 그중에서 동쪽 버몬트에서 서쪽 웨스턴까지 8 블럭이 코리아타운의 중심이다. 보이는 고층 건물은 거의 한인 소유, 한인 은행, 그리고 식당 등 ‘우리 동네’라고 부를 만하다. 1981년 LA 시의회가 정식으로 윌셔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했으니 행정적으로도 공인 받은 ‘한인 동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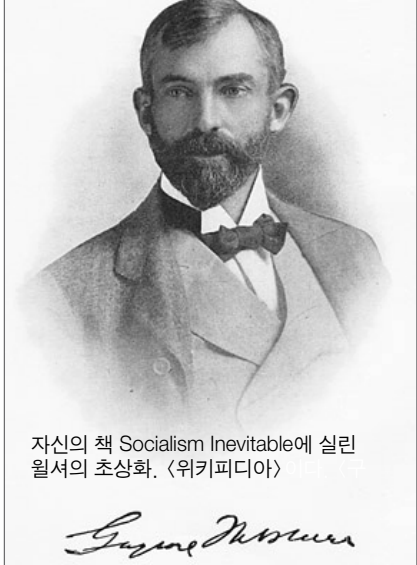
윌셔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다. 헨리 게이로드 윌셔(Henry Gaylord Wilshire), 그는 1890년대 지금의 웨스트레이크 맥아더 공원 근처에 보리밭을 사들였다. 그 가운데로 폭 4미터 정도의 길을 내고 자기 이름을 붙였다. 그는 그 보리밭을 전원 주택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1895년 LA시에 그 땅의 일부를 제공하고 동서 간선도로 전체에 자기 이름을 남겼다.

윌셔는 오하이오 출신으로 20대에 LA



윌셔의 책 Socialism Inevitable에 실린 윌셔의 초상화. <위키피디아>

로 왔다. 부동산 금광사업으로 백만장자가 됐다. 그러나 그는 골수 사회주의자였다. 정치에도 뛰어들어서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뉴욕 등에서 좌파 후보로 선거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의회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은 건 ‘낙선 다관왕’이라는 칭호. 말년에는 ‘더 윌셔(The Wilshire’s)’라는 잡지를 발행했다. 1927년 뉴욕에서 죽을 때는 무일푼.



윌셔의 책 Socialism Inevitable에 실린 윌셔의 초상화. <위키피디아>



윌셔와 켄모어 코너의 게이로드 아파트는 그의 중간 이름을 딴 빌딩이다. 1924년 당시 최고급 호텔로 개관했다. 아파트로 바뀐 뒤에도 닉슨, 자자 가보르 등 정쟁한 명사가 살기도 했다.

게이로드에서 길 건너에 있는 엠배서더 호텔은 할리우드의 황금기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LA 최고의 명소. 호텔 안의 코코넛 그로브라는 나이트클럽에서는 프랭크 시나트라, 바버라 스트라이샌드 등이 노래를 불렀다. 1968년 로버트 케네디가 여기서 암살당했다.

게이로드 서쪽 바로 옆에 브라운 터버라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었다. 터버 모자의 모양을 딴 대형 원형돔 건물 속에 있던 레스토랑. 웨이트리스들은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서 LA로 온 미녀들. 마릴린

먼로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 옛날의 역사는 가고 그 원형돔은 그 자리 사평센터 이층에 덩그러니 남아있다. 한때 한국 술집이었지만, 지금은 텅 비어있다.

윌셔는 죽어서 이름은 남겼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아직 100년도 안 되는데 윌셔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적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다. 이름마저 남기지 못하는 사람, 이름만 남기고 가는 사람, 세월이 지나면 다 고만고만하다.

또 100년 후 여기가 우리 동네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까? 무엇을 남기든 한국인 입장에서는 ‘남의 동네, 우리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동네, 남의 역사’와 다를 바 없다.

## 금빛 8순 잔치

Dr. 박종수 (수의대 58) 수의대 전 회장님의 80세의 생신과 결혼 50주년 기념파티가 1월 7일 토요일 J.J. Harvard Grand Hotel 에서 열렸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젊은 얼굴의 환한 웃음으로 130여명의 지인, 가족, 교회 및 서울대 동문등 참석한 모든 분들로부터 기쁨의 축하를 받았다. 화려하지 않고 조촐한 축하파티는 김성수 목사님 사회로 최세형 목사님의 기도와 박성근 담임목사님의 영어말씀과 축도로 시작했다.

“주말에 바쁘신 중에도 먼 곳에서 참석해 주신 서울대 수의대 및 남가주 동문 선·후배님, 목사님과 교수님, 가족 친지분, 사업 동료 여러분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0 생일이며 결혼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지껏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 왔습니다. 대화 속에서 친교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말씀에서 박종수 회장님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장로님으로서의 겸손한 삶을 보여주신 듯 했다.

이어 박정윤 여사께서 어떤 내조를 일생 하셨는지요? 라는 질문에 “50년의 세월을 이분 옆에서 같이한 지난날들. 잡은 31장 10절의 말씀처럼 헌신한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늘 생각하며 나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늘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세 자녀도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잘 자라줘 또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했다. 아가자기하게 꽃으로 장식된 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곳은 사방의 창문에 햇살이 드리우는 아담한 기도방이란다.

Dr. 김영(수의대 63) 남가주 총동창회 전 수의대 회장님의 축하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미시간에서 교수와 사업을 하시다 L.A. 로 이주해서 처음 뵈 후 어언 20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벌써 80이 되셨는데 동안의 얼굴에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건강하시고, Averrett 대학에서 디렉터로 일하시며 학계와 사업의 변창으로 성공하시고, 신앙심이 강하여 선교사업에도 봉사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시고, 수의대 후배들의 부탁에 거절한 적이 없는 선배님을 존경하며, 수의대 10만불, 서울대 모교에 연구기관을 위한 100만불 이상의 큰 땅 기부 등 복이 많으셔서 세 자녀들도 잘 키우고 손자 손녀들과 다복하십니다. 아내 박정윤 여사는 사랑이 많으시고 여장부 같은 기지와 인교부부로 늘 함께 다니시고 두 분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며 오래 사시고 건강하십시오.”



게시판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알려드립니다.소식을 알리고 싶으신 분은 news@snuua.org로 이메일 주십시오.

❖ 34th Annual Medical Convention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제 34 차 학술대회 및 동창회)

일시: 3월 1일 (수) - 5일 (일), 2017  
장소: Pacific Palm Resort  
(One Industry Parkway City of Industry, CA )  
예약: 1-800-524-4557

❖ 뉴욕 골든클립 신년교례회

일시: 3월 25일 토요일 6시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 서용선 동문 ‘크로스 월드’ 기획전

기간: 2월 9일 - 18일  
장소: Art Mora Gallery, 547 W. 27th St. Suite 307, NY



그 외의 수의대 이승택(수의대 75) 회장님을 비롯한 손수웅 (수의대 60)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동문 외 선후배 목사님과 친지여르신 여러분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Dr. 김병연(공대 68)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님의 “학계, 업계, 가정, 후원, 모든 면에 분이 됨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Dr. 최재현(수의대 66) 남가주 수의대 전 회장님 및 L.A. 전 평동회장의 “성경말씀대로 사시는 박종수 선배님의 겸손과 베품에 감동받아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인사가 계속되었다.

또한 3 자녀(두 딸과 아들)이 아버님에 대한 추억들과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포옹하면서 눈물이 보여 다함께 마음이 정했다. 백정현 남가주 음대 전 회장님(아내 Mrs. 박혜옥 남가주 총동창회 전 회장)의 박종수 회장님 내외분께 드리는 Love Songs 들, “And I love you so” 의 3 곡은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끝이 없는 앵콜로 밤을 새워 듣고 싶을 정도로 사트르 몸을 녹였다.

백옥자 서울대 미주동창회 조직국장의 가야금 연주 침향무(작곡 황병기)는 동양과 서양의 정서를 잘 어우르는 새로운 기법 (양손이 안쪽 오른쪽에서 연주)과 5음계의 색채는 이색적인 음의 조화를 이루었다. 2부 사회를 본 Dr. 신통국(수의대 76)동문의 아내 Mrs. 소피아 신푼 님의 금혼식을 생각하며 지은 자작시 ‘금빛 장미에 새긴 사랑’를 소개해 참석한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Mrs. 박정윤이 일일이 소개한 내빈들이 끈끈히 새겨진 친분의 세월들을 회상하며 드린 덕담들이 두 내외분에게 앤돌핀을 채워줘 120세를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푸짐한 저녁식사는 접시에 넘칠 정도로 가지 수가 많아 짭짭 맛있게 식사했다. 가족 모두 나와 케익을 자르며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며 사랑스러운 파티를 하였다. L.A. 한인 침례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저서 ‘여독속을 걸어가는 용기’와 수건을 선물로 준비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짧게 사시는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과 깊은 신앙심의 밑거름으로 많은 봉사 활동 및 교회 건축 , 선교 등과 서울대 및 타 기관의 후원금으로 베풀고 사시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말했다.

글: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오늘은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동문이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입니다. 모교 상대를 48년도에 입학했고 재학 시절부터 K 방송국 아나운서로 펴 인기도 좋았고, 6.25 때는 평양 탈환 시, K 방송의 첫번째 방송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는 느지막하게 고생줄에 들어서 동창회보 받아볼 돈도 어려운 실정이라 합니다.

오늘 제가 금년도 회비 75 불 짜리 수표를 보내오니 이 친구가 앞으로 계속 회보를 받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서울대 동문중에 이처럼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도 슬펐으며, 회비가 없어서 동창회보를 볼 수가 없다 하니 너무나 눈물이 나왔다. 사실 우리 회보는 회비납부에 상관없이 주소변경만 확실히 보내주면 배달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의 동창회보를 그토록 읽어보고 싶어하는 동문이었다는 것에 또한 가슴이 미어지는 기쁨이 슬픔과 함께 느껴졌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 너무나 좋은 내 친구에게 ‘보내주신 수표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 분이 반드시 우리 동창회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헤쳐갈 것’을 약속드린다.

윤상래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 폭설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은 멈추지 않고 육 일째 내렸다. 나는 눈의 장벽에 갇혀 두려움을 안고 차라리 눈이 되었다. 뿌연 들판으로 하얀 가루가 되어 밤낮으로 내리고 있었다.

육 일이 지난 후 제설차가 나를 실어 나를 때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미끄럼을 타고 함성을 지르며 내 이름을 불었을때 파란 하늘처럼 활짝 웃었다.

서윤석 (의대 62년)



이중호 (인문 81)

#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다. 선비의 길은 크게 두 갈래였다. 첫째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열심히 학문을 닦고 자기 수양을 마친 뒤 세상을 경륜하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조선 선비들은 과거를 보고 벼슬살이를 하면서 이 길을 걸었다. 하지만 일생을 초야에 묻혀 학문과 교육에만 매진했던 선비들도 적지 않았다. 16세기 영남 유학의 거두였던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이 그런 사람이었다.

남명의 학문과 지조는 조정에서도 인정하는 바였다. 그렇지만 그는 유학적 이론에만 매몰되지 않고 실전을 중시했다. 그래서인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며 구국의 선봉에 섰던 사람 중에 광재우정인홍.김면 등 남명의 제자들이 유독 많았다. 남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1501년생, 신유년(辛酉年) 닭띠 동갑이었다. 낙동강을 경

## 군자의 길

계로, 지금의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좌도에는 퇴계가, 진주·합천을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에는 남명이 영남유학의 양대 봉우리를 이루며 선의의 경쟁을 했다. 둘의 관계에 대해 서울대 정옥자 명예교수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2002, 현암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점진적인 개혁의 씨앗을 뿌리며 신정치 세력인 사림의 입지를 다져 놓은 퇴계 이황과, 강렬한 비판 의식으로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한 재야사림의 영수 남명 조식, 그들의 성향은 달랐지만 지향점은 같았다. 자신의 안위나 영달보다 사회개혁의지를 불태우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자신의 학문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 남명과 퇴계 두 사람을 단순 비교하면 퇴계의 명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퇴계의 학맥은 후대에까지 이어졌고 그가 세운 도산서원은 영남사림의 거점으로 오랫동안 조선 지배세력의 뿌리

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남명이 평생 초야에 묻혀 처사(處士)로 살았던 것 못지않게 퇴계 역시 혼탁한 벼슬자리보다는 교육과 학문 정진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실제로 퇴계는 34세에 대과에 급제하고 정일품에 해당하는 우찬성까지 올랐지만 50세 이후에는 낙향하여 연구와 저술에 몰두했다. 물론 낙향 중에도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퇴계에게 벼슬을 내려 출사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사양하거나 사퇴를 되풀이했다. 실제로 퇴계가 올린 사퇴 상소는 21년에 걸쳐 무려 53회나 되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벼슬자리에 초연했는지 짐작이 간다.

# 2017년 한국은 신년 벽두부터 대선 바람이 거세다. 덩달아 큰뜻을 펼쳐보겠다는 인사들도 우후죽순 얼굴을 내밀고 있다. 때맞춰 었그제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눈길을 끈다. 다음 대통령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도덕성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두 배나 많았다. 뒤늦은 학습효과라고나 할까. 과거 능력과 이미지만 보고 대통령을 뽑았다가 연거푸 낭패를 보고 난 지금에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사실 능력이란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도덕성은 평생 쌓아온 인품이고 인격이다. 자리가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딴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진작 도덕성부터 살펴야 했다.

대통령만 그렇까. 무슨 자리든 리더를 세우려면 먼저 인품부터 살펴야 뒤탈이 없다. 동양의 모든 사대부들이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에 앞서 수신제가(修身齊家)부터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도 그래서였다. 2017년 닭띠 새해가 시작됐다. 리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퇴계와 남명, 두 닭띠 선비들이 걸었던 군자의 처신을 한번쯤 헤아려 보았으면 싶다.

(미주중앙일보 OC 본부장)

[영화]

## LA LA LAND (2016)

하이웨이에 꼭 막힌 채 오도가도 못하는 자동차의 끝없는 행렬로 영화가 시작된다. 그 행렬의 답답함 속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연이어 하나, 둘 그 노래에 Join 하고, 누군가는 춤을 춘다. 꼭 막힌 고속도로가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뮤지컬 무대로 변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정체가 풀리며 자동차들은 다시 가던 길을 계속한다. 이 오프닝이 어쩌면 영화의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두 청춘 남녀의 이야기다. 미아(Mia)라는 이름의 여주인공과 세바스찬(Sebastian)이라는 이름의 남주인공. 두 남녀의 불가능한 것 같은 꿈을 추구해 나가는 이야기다.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 네바다를 떠나 할리우드에 와서 커피집 알바를 하며 도전해 보는 오디션마다 낙방을 거듭하는 미아.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고, 제즈 생음용 카페를 갖는 게 꿈인 세바스찬. 그러나 생존은 만만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거리라곤 레스토랑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건반을 놀려다 흥을 돋구는 알바 밖에 없다. 그 알바마저 감성에 젖어 클래식한 음악을 한 곡 연주한 죄로 해고당하고 만다. 영화의 시작부분 하이웨이에 서 우연인 듯, 운명인 듯, 지나쳤던 이 두 사람이 각각 여자의 길, 남자의 길을 돌아 결국은 만나게 된다.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눈동자에 불꽃이 튀고 좌절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눈동자에 어둠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랑에 빠진다.

서로의 꿈에 공감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격려해주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그런데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게 현실이다. 남자는 대학때 친구를 만나 자

의반 타의반으로 밴드에 조인하고 각지를 떠돌며 연주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자는 여전히 오디션에 떨어지고 커피집 알바를 계속한다. 할리우드 영화니까, 이들의 끝은 뻔한 거 아닌가? 천신만고 끝에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고 ‘Happily thereafter..’를 외치며 서서히 fade-out 하는게 정석이어야 하는데, 아니다. 영화는 그게 아닌거다.

참 잘 만든 영화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찡른다. 그들의 노래가 가슴에 파고든다.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장면장면이 가히 예술적이다. 최근의 Golden Globe Musical 부분에서 7개 상을 수상했다. 아카데미상도 무려 14개 분야에서 수상후보에 올랐다.

표를 사러 극장엘 갔는데, 다 팔리고 맨 앞줄 몇자리만 남았다는 바람에 동네 소극장엘 가서 세 시간 후 짜리 표를 구했다. 그런데 이것도 극장 안에 들어서니, 좌석이 없다. 그래서 왼쪽 맨 끝자리에 비스듬히 앉아서 찌그러진 화면을 보아야 했다.

우리 이민의 삶이 이렇게 아니었나? 꿈을 가지고 미국엘 왔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삶은 꿈됐던 것 보다는 찌그러진 삶이 아니었을까? 영화의 주인공들이 우리의 자식 세대인데, 우리의 자식이라고 모든게 순풍에 돛탄 듯 흘러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성공이 뭐냐? 풀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꼭 막혀버리는 고속도로 같은 세상이 아니던가?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는 상상 속 판타지의 세상,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그 세상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일게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아, 그때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 누구의 시 ‘the road not taken..’처럼 말이다. ‘La La Land’, ‘달랠라’ 노래하는 세상? 그런데 다시 보면 엘레이, 엘레이, Los Angeles는 천사들의 세상, 누구나 꿈꾸는 세상인가? 영화는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다. 그 세대의 이야기고 우리 세대의 이야기다. 혼자 보는 것도 좋지만 장성한 자녀와 함께 보기를 강추한다. 김정현 (공대 68)

[단상]

## 無와有

나는 대학 졸업후 군대 갔다 와서 평소하고 싶었던 식물 분류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임학과 이창복 (수목학) 교수님의 등짐을 지고 몇년 동안 전국을 따라 다녔는데, 아마도 식물의 이름을 명명하는데 사용하는 라틴어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수목학에서 맨처음 배우는 나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일본과 한반도 전역에 걸쳐 널리 자생하는 소나무 (赤松) 인데, Pinus densiflora Siebold et Zuccarini 라고 한다. 분류학의 창시자인 Sweden 의 Carl von Linnæus (Species plantarum, 1753)의 제자들인 Siebold와 Zuccarini가 일본에 왔을 때, 명명하고 국제 학회에 발표한 Scientific name이다. 이때에 이들이 소나무를 정의하기 위하여 Reference로 사용한 소나무 표본은 Type specimen이라 하여 일본 동경대의 식물 표본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소나무와 더불어 생활해 왔지만, 철학적으로 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나무의 이름과 관련해서 큰 혼동을 하며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소나무란 엄밀히 말해서 이 현실 세계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개념일 뿐이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애국가에도 나오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이 허구적 소나무의 Definition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적, 현상의 세계 속에서 구현하는 또는 Incarnate하는, 하나의 Instance 또는 Occurrence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실체가 없는 logical 소나무이고 후자는 실체를 가진 physical 소나무이다.

그런데, 이 구분은 바로 IT의 JAVA programming에서 말하는 “Class” 와 “Objects”의 구분이고 Relational Database 에서 말하는 “One to Many”의



소나무 이름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는냐 하면, 이 허구적 소나무와 실제적 소나무의 구분이 바로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Platon의 Idea 철학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의 사유 체제는 이 Platon 철학 속에서 형성되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세상 만사를 이런 식으로만 재단하려 하지, 다른 세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전, 나의 프랑스 유학시절 은사이

셨던 Michel Godron 교수 (생태학,은퇴, 프랑스 파리 대학교)로부터 연락이 왔다. 도덕경 첫 장에 나오는 아래의 귀절들에서, 無名과 有名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냐고, 서구 언어에 익숙한 나에게, Ideogram인 중국어는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 그 Invocation power가 신봉하기도 하다. 한마디 톡 던지는 Style 이니, 결국엔 이것 저것 살펴 깊게 상상하는 자의 편이다.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

첫 두 글자를 한 단어로 해서 無名 또는 有名으로 읽지 마시고, 떼어서서, 無나 有 한 글자만을 주어로, 名은 동사로, 나머지지는 목적어 또는 보어로 읽으십시오 (2014.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그러니까, 無, 名 天地之始 그리고 有, 名 萬物之母로 읽으시라고 말씀 드렸다. 그럼, 天地之始 나 萬物之母는 대강 짐작이 가는데, 無와 有는 무엇인가? 당연히 나에게서는 “無”는 눈에 보이지 않는 logical 한 Idea의 세계 이고, “有”는 감각적, 현상의 세계, 즉 실재적 physical한 세계를 뜻한다. IT worker가 Class(無)에서 Objects(有)를 자유자재로 만들어 내고, 길거리의 불어뿜 장사가 불어뿜 틀 (無)에서 불어뿜 (有)을 구어내 듯.

그런데 최진석 교수는 Platon은 Platon, 노자는 노자. Platon 철학의 Frame 속에 노자 철학을 꾸겨 넣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의 말이 이어진다. 저는 노자의 “無”와 “有”를 존재적 위상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無”에서 “有”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플라톤적으로 본다면, “無”가 “有”의 존재 근거 혹은 발생 근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자에서는 “無”가 “有”에 기대어 있듯이 “有”도 “無”에 기대어 있습니다. 상호 의존하며 기대어서 만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즉 有無相生이 노

자 철학의 기본 구도입니다. 물론 매우 다르지만... 역지로 플라톤의 철학과 유비시킨다면...” 無”와 “有”가 상호 의존해 있는 형식 자체가 “이데아”에 해당하고 만물이 “Phenomenon”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구조를 건강부회(牽强附會) 식으로 유비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Godron 교수로 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성경의 요한복음(Evangile selon Jean) 첫 몇 줄을 읽어 보라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Au commencement était la Parole) ...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Toutes choses furent faites par elle)...’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Parole(말씀)이란, 히랍어의 Logos가 그렇게 번역된 것이라 한다. Logos에는 Logic이란 뜻이 있고, 그렇다면 Logos란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 추상적 세계, 즉 Platon의 Idea 의 세계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 노자 철학으로 말해서 有無相生은 어떻게 ?

나는 아직도 노자의 이 有無相生이란 가르침에서 有와 無를 어떻게 서구 언어로 옮겨야 할 지 모르겠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악세러터와 브레이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둘이 서로의 존재야 자동차가 가니까... 관계론적 철학이다.

오늘은 동네 중국집에 가서 꽤알 한 잔 허겁에 적시며, 웨이터 붙잡고 중국어 회화 연습이나 하자. 니더 차이, 쩐 하우 츠. 자이 짜엔 (너의 집 음식, 진짜 맛 있다. 또 올게).

이창복 교수님이 새삼 생각한다. 그리고 도움 말을 주신 Michel Godron 교수님과 서강 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바쁜 일 제쳐 두시고, 나처럼 은퇴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말대꾸하시며 진을 빼기가 쉬웁지 않으실 터인데 ...

李炳宏 (이병평, 농대 62)

[독후감]



민경훈 (법대 58)

‘라 만찬’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남동쪽으로 100 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다. ‘스페인에서 가장 평범한 곳’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평범한 이곳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것은 실제로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소설 속에 존재하는 가공의 인물이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의 주인공 라 만찬의 기사 돈키호테가 그 사람이다.

아랍어로 ‘광야’를 뜻하는 이 지역은 스페인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있는 곳으로 지금도 수많은 양떼와 풍차를 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 돈키호테가 양떼를 군대로 오인해 공격하고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돌격하는 에피소드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경 다음으로 널리 번역되고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세계 주요 문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에서 ‘가장 위대한 책’ 1위로 뽑힌 ‘돈키호테’는 마크 트웨인이 말한 고전의 정의인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읽지는 않는 책”에 딱 들어맞는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글 완역본으로 1,500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만 해도 방대한 데다 비슷한 이야기가 수없이 반복되고 어떤 경우에는 앞뒤가 잘 맞지 않아 세르반테스 자신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착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평론가는 이 책을 집에 찾아온 반갑지 않은 늙은 친척에 비유하면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지저분한 친구들까지 불러 들어 한 얘기를 또 하며 사람을 지치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문인들의 이 책에 대한 평가는 확고하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보다 힘 있고 심오한 작품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유명한 밀란 쿤데라는 “모든 소설가는 세르반테스의 자식”이라고 주장했다.

어째서 얼핏 보면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지루하기 짝이 없

## 광야의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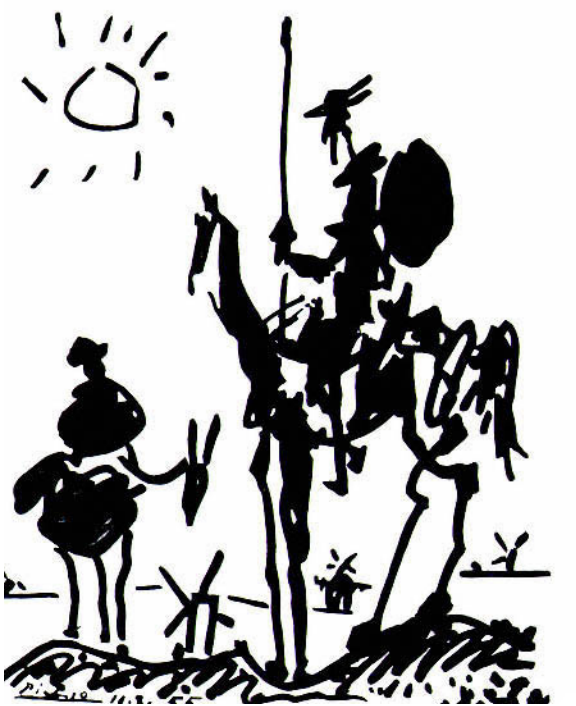
는 이 책이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의 하나는 이 책이 풍차와 양떼의 에피소드에서 보듯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외양과 실체, 현실과 이상, 존재와 당위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또 여기 등장하는 수백가지 격언은 시대가 변해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중 몇 개를 소개하면 “고양이와 노는 사람은 할퀴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가 밖에 있는 두 마리보다 낫다” “내일은 새 날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성숙하게 만든다. 태어날 때부터 현명한 사람은 없다” 등등.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이 지금까지  
읽히는 큰 이유는  
무엇이 진정한  
값 있는 삶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돈키호테의 하인인 산초 판자는 원래 먹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가 편력 기사인 돈키호테와 함께 길을 떠난 것도 한 고을의 영주 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며 ‘판자’라는 이름 자체도 ‘밥통’이란 뜻이다.

그런데 그가 돈키호테와 수많은 모험을 함께 하며 세상은 밥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돈키호테는 나중에 자기가 환상에 사로잡혀 헛고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한 속에 숨을 거두지만 산초는 오히려 돈키호테에게 높은 뜻을 버리지 말고 다시 모험을 떠날 것을 호소한다.



산초가 한 섬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에피소드에서 돈키호테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정의와 자비를 들며 둘다 신의 속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비야말로 인간에 더 부합하는 덕목이라고 가르친다. 기사의 존재 이유는 약자를 돕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집을 나선 돈키호테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환멸 속에 생을 마감하는 것은 이 작업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말해준다.

돈키호테가 미친 인간으로 나온 것은 아마도 제 정신을 가진 인간은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친 일이다. 어쩌면 너무 제정신인 것이야말로 미친 것인지 모른다. 가장 미친 것은 세상을 마땅히 그래야 할 곳으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라고 세르반테스는 말한다.

지난 4월 23일은 세르반테스가 죽은 지 400년이 되는 날이었다. 유네스코는 셰익스피어 기일과 같은 날짜인 이 날을 ‘세계 책의 날’로 정해 기리고 있다. 그의 명복을 빈다. <논설위원>





**[영화]**

# The Godfather

한효동 (공대 58)

이 영화는 1972년 Francis Ford Coppula가 감독한 Mario Puzo의 소설 “The Godfather”로 1945년에서 1955년에 걸친 ‘Vito Corleone’ Mafia Family의 이야기이며 그 세째 아들 ‘Michael Corleone’로 가족세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무자비한 Mafia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부득이한 살생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아서 알겠기에 생략하고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를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논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영화 시작부터 흘러 나오는 Nino Rota의 Godfather Theme 음악에 매료되어 저의 I-Phone Ringtone도 ‘God-father Waltz’로 바꾸었고 지난 제 7순 생일의 Theme도 Godfather였습니다 (사진). 이 영화는 Oscar에서 Best Picture, Best Actor(Maron Brando) 그리고 Best Screenplay상을 수상했으며 Al Pacino,



**김기훈 (상대 52)**

학위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취직이 되었을 때 지도교수인 켄드릭(Dr. John W. Kendrick) 박사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미국의 생산성 (Productivity) 연구의 권위로 많은 저서를 펴냈으며, 명강의로도 유명한 분이다. 지난 43년간 가르치면서 이토록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귀중한 당부가 어디 있으랴.

흔히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시작하면 목에 힘을 주어 “내로라” 하는 태도와 어투, 학생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고 어려운 전문용어와, 딱딱한 내용이 되기 쉽다는 충고이다. “구름 위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거리가 생기고 물과 기름처럼 융합이 되기 힘들다. 지루한 시간의 연속이다. 강의와 함께 설교도 마찬가지. 어느 시골에서 교회에 다녀온 신자에게 설교내용을 물었더니 “오늘은 서울에서 온 젊은 목사님이 노상 ‘췌췌췌, 소곡지’라고 되풀이해서 도무지 설교를 알아듣지 못했다.” 라는 대답. 아마 “적극적, 소극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겠지. 젊은 목사도 구름 위에서 설교해 시골 고인들

|                   |                                                                                                                                                                                |                                                                                                                                                                       |                                                                                                                                                               |
|-------------------|--------------------------------------------------------------------------------------------------------------------------------------------------------------------------------|-----------------------------------------------------------------------------------------------------------------------------------------------------------------------|---------------------------------------------------------------------------------------------------------------------------------------------------------------|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 말 | The English novelist Aldous Huxley was born in 1894 and passed away in 1963. He wrote many novels like ‘Brave New World’, ‘The Genius and the Goddess’, ‘Heaven and Hell’, es- | says, short stories, biography, poetry, travel, drama.<br>And he said in one of his books ‘I wanted to change the world. But I have found that the only thing one can | be sure of changing is oneself.’ These words have been my lifelong guideline and mentor to sustain my every day life in this contemporary world.<br>박취서(약대60) |
|-------------------|--------------------------------------------------------------------------------------------------------------------------------------------------------------------------------|-----------------------------------------------------------------------------------------------------------------------------------------------------------------------|---------------------------------------------------------------------------------------------------------------------------------------------------------------|

**편집 후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오리 속에서 양측의 소리들이 들려온다. 미주동창회가 탄핵을 반대하는 성명서라도 하나 내아하지 않겠느냐? 라든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들이 무성하다. 편집위원회로 이메일들이 들어온다. 미주동창회는 ‘501-C3 비영리법인’이

지금까지의 Mafia 영화는 무법과 폭력을 일삼는 집안으로 묘사되어 왔지만 이 영화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나아갈 Mafia Family의 미래상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비록 Corleone Family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으로 묘사는 됐지만 힘없는 이웃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으며 일반인에게 매춘, 마약 그리고 고리대금등 공갈협박하는 Family로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Producer에게서 Job을 못 구하고 울고 있는 가수겸 배우 Johnny Fontane (일설에는 Frank Sinatra라는 Rumor가 있었음)에게 Godfather인 Don Vito가 한 말, “You can act like a Man”은 특히 요즘와서 저에게 많은 것을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한마디 말

# “구름위에 있지 말고 땅에 내려와서 가르쳐라.”

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제작 중 미국, 한국, 일본에서 겪은 나의 경험과 관찰을 추가한다면 대학강의는 권위주의형, 교과서 낭독형, 총장/학장/학과장 비난형, 잡담형, 정견발표형, 연구논문 자랑형, 그리고 명강의형, 창의와 격려형 등으로 분류해본 적이 있다. 따라서 명강의형이 되자면 “땅에 내려와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쉬운 용어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유머가 가미된 내용이면 더욱 바람직하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충실히 준비한 강의는 시간가는 줄도 모를만큼 문맥과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학생들도 집중해서 수강한다. 온 정성을 다하여 집착하고 다급하던 설명해주는 인내도 필요하다. 명강의로 이름난 교수님들은 다음 강의시간이 기다려진다. 공격으로 사적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새학기 등록식에는 언제나 정원을 초과한다.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친근미가 풍부해진다고 단언한다.

“언제나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와 대화

를 나누고 배우도록 하라.” 오래전 대학원 학생시절 인디애나대학을 방문했을 때 만난 철학교수님이 내게 주신 조언이다. 인생은 어디나 교실이며, 배움은 평생의 과업이고 좋은 교훈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뛰어난 성격중의 하나가 누구를 만나도 대화를 나누고, 주로 듣기를 위주로 하여 항상 새로운 지식을 터득했다는 점이다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는 우리를 주위에 늘 존재한다. 대학교수, 선생, 목사, 신부, 스님, 정치가, 문학인, 예술가, 음악가, 각종 운동선수들, 부모, 선배, 친구 등등. 그리고 요즘은 IT의 눈부신 발달로 컴퓨터, 스마트 폰은 아들과 딸, 손자 손녀에게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어의 학습을 위해서는 그나라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상수이다. 말과 함께 문화와 상식도 배우게 된다. 전 미국 대법원의 호음즈 대법관이 “우리는 매일 한가지 이상씩 새로운 것을 배운다.” 라고 관찰하였다.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은 항상 활짝 열려있다. 누구를 만나도 친근해지며,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존중하고 다양한 질문

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92세로 Trump연설을 마치 막으로 들고 타계하신 인권운동가 Phyllis Schlafly가 남녀평등에 관해서 하신 말씀 “남자는 남성다운 것 여자는 여성스러운 것이 남녀평등”이라는 뜻을 깊이 새겨봅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겉으로는 경찰 Captain이면서 돈으로 매수당한 공직자와 적대관계인 Mafia Clemenza를 조그마한 Italian Restaurant 변소 Water Closet 뒤에 숨겨두었던 권총으로 모두 사살하고 떠나는 Michael Corleone의 모습에서 요즘 특히 한국사회에서 만연하는 부정부패가 언젠가는 말살되는 깨끗한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이렇듯, 위대한 마음과의 대화에서 지식의 지평선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노력을 계속한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모성애로 나눔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원봉사도 서슴치 않는다. 남을 선도해줄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이 풍부한 인격자로 만인이 우러러 보고 기꺼이 따르는 훌륭한 존재로 인생을 즐긴다. 평생 배운 지능을 온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공헌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힘쓴다. 지성인으로 보람있는 삶을 만끽하여 “한 평생 헛되이 살지 않았다.” 라는 자부심도 갖게 마련이다.

삼기 지도교수님과 철학교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



## 이달의 사진

‘Bryce Canyon’

EXIF: Sony ILCE-7R F11 ISO100 1/3Sec -0.3EV 24mm Aperture Priority



박은숙 (미대 62)

## [역사]

# 일주일이 7일 된 유래



**최용완 (공대 57)**

인류역사에 가장 일찍 ‘7’ 숫자를 표현함은 한반도의 신석기시대에 고인돌의 평바위에 북두칠성의 일곱 별자리를 구멍 내어 새겼던 때로 여겨진다. 고인돌 문화는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에 나타났으며 청동 칼과 도구가 고인돌에서 처음 나타났기에 동아시아의 금속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일찍 발달하여 현대 인류의 생활혁명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 제왕은 기원후 325년에 스스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7일주기 사바스 신봉제도를 선포하여 그때부터 일주일이 7일로 정해졌다. 일주일에 Sunday는 해의 날, Monday는 달의 날, Tuesday는 불의 날, Wednesday는 물의 날, Thursday는 나무의 날, Friday는 금속의 날, Saturday는 흙의 날이 된다고 이들 단어가 로마시대 대 해 달 불 물 나무 금속 흙을 상징하는 신들의 이름이었다.

로마제국의 콘스탄티누스 제왕은 기원후 325년에 스스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7일주기 사바스 신봉제도를 선포하여 그때부터 일주일이 7일로 정해졌다. 일주일에 Sunday는 해의 날, Monday는 달의 날, Tuesday는 불의 날, Wednesday는 물의 날, Thursday는 나무의 날, Friday는 금속의 날, Saturday는 흙의 날이 된다고 이들 단어가 로마시대 대 해 달 불 물 나무 금속 흙을 상징하는 신들의 이름이었다.



진시황제가 기원전 216년에 제국을 세우고 세계역사에 처음 황제로 등극한 다음 500년이 지나서 지중해에 로마제국이 나타난다. 이미 동아시아에서 전

해오는 문물은 해로와 육로의 비단길 따라 날마다 장날이 서고 모여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는 생활 풍습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환단고기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해와 달 사이에 일렬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다. 천문학자들은 그때가 기원전 1733년경으로 계산하였다. 우리 선조는 그때 이미 태양계의 다섯 별들을 관찰하고 불 물 나무 금속 흙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동아시아의 음과 양 오행으로 합하여 만들어진 7숫자는 동인도 간디스강의 불교로 전해지고 불교는 서남아시아의 기독교로 전해져서 성경에 7숫자가 4백여 번 이상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사진은 동아시아 문명이 열어놓은 비단길 지도와 금속무기로 무장한 훈족 기마병)

중국과 인도 양국의 불교기록에 그리스의 도시국가 왕들이 아세아의 불교사찰을 찾아와서 승려가 되어 수련하고 돌아갔다는 기록을 보면서도 유럽의 역사책에는 발표되지 않는다. 혈연학자들이 연구하여 2008년에 발표한 세계 인류혈연지도에 관해서도 동아시아인의 선진성이 명백하여 다시 거론하려 하지 않는다. 백인 우월주의 세계역사만 고집하고 세계사 안에 동아시아의 우월한 위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칭기스칸이 중세기 유럽을 잠에서 깨워 동아시아 문명을 전해주었

##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 1월 말까지 회비납부 765명 / 총회원 7019명 |  |            |            |            |            |            |                 |            |            |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            |  |  |  |  |  |  |  |  |
|------------------------------|--|------------|------------|------------|------------|------------|-----------------|------------|------------|--------------------------------------|------------|--|--|--|--|--|--|--|--|
| 동창회비:                        |  |            |            |            |            |            |                 |            |            |                                      |            |  |  |  |  |  |  |  |  |
| 남가주 S.CA/NV                  |  | 박종수(수의 58) | 이혜영(공대 56) | 안병협(공대 58) | 박순영(법대 56) | 조규용(의대 59) | 황효숙(사대 65)      | 최대한(의대 53) | 서취열(의대 55) | 정인대(의대 58)                           |            |  |  |  |  |  |  |  |  |
|                              |  | 박종식(의대 46) | 이호진(보건 74) | 안호삼(문리 58) | 박승화(간호 69) | 조아미(음대 61) |                 | 최병두(의대 52) | 석균범(문리 61) | 정일화(상대 55)                           |            |  |  |  |  |  |  |  |  |
| 강경주(법대 58)                   |  | 이희충(농대 63) | 이희충(공대 68) | 오명주(간호 77) | 박영태(상대 63) | 조종수(공대 64) | 샌디에고 SAN DIEGO  | 최태현(의대 57) | 최혜숙(약대 68) | 주중광(약대 60)                           |            |  |  |  |  |  |  |  |  |
|                              |  | 박창규(약대 59) | 임동규(미대 57) | 온기철(의대 65) | 박용해(상대 83) | 주공로(공대 68) |                 | 최우진(의대 67) | 신구용(공대 59) | 최우백(공대 76)                           |            |  |  |  |  |  |  |  |  |
| 강동순(법대 59)                   |  | 박태호(치대 66) | 임문호(약대 55) | 원미람(미대 65) | 박진우(상대 77) | 주공로(공대 68) | 캘리포니아 SC/NC/KY  | 강영호(의대 57) | 하계현(공대 64) | 안신비(농대 65)                           |            |  |  |  |  |  |  |  |  |
|                              |  | 김정훈(미대 56) | 이민호(상대 58) | 윤진자(미대 60) | 박현식(약대 60) | 차국만(상대 56) |                 | 한경진(상대 59) | 안승진(문리 55) | 최종진(의대 63)                           |            |  |  |  |  |  |  |  |  |
| 강중경(공대 48)                   |  | 박혜옥(간호 69) | 임진환(치대 68) | 이관모(공대 55) | 박준재(의대 63) | 최구진(약대 54) | HAWAII          | 김기진(공대 61) | 한일일(공대 62) | 안태민(공대 62)                           |            |  |  |  |  |  |  |  |  |
|                              |  | 박창희(공대 68) | 임창희(공대 73) | 이창우(문리 72) | 배명애(간호 47) | 최수강(의대 71) |                 | 한재은(의대 59) | 양광수(공대 73) | 중부텍사스 MID-TEXAS                      |            |  |  |  |  |  |  |  |  |
| 강희창(공대 57)                   |  | 백소진(문리 55) | 장소현(미대 65) | 이문영(문리 61) | 배상규(약대 61) | 최영태(문리 67) | 테네시 TENNESSEE   | 이문성(공대 62) | 함성택(문리 55) | 오광동(공대 52)                           |            |  |  |  |  |  |  |  |  |
|                              |  | 고석규(치대 65) | 백옥자(음대 71) | 이정우(문리 72) | 이현숙(사대 62) | 변건준(공대 65) |                 | 최형태(간호 64) | 이영모(의대 55) | 이영신(간호 77)                           | 이정현(문리 63) |  |  |  |  |  |  |  |  |
| 고영순(음대 59)                   |  | 백옥자(음대 71) | 장정용(미대 64) | 임정란(음대 76) | 서병선(음대 65) | 최형무(법대 69) | 애리조나 ARIZONA    | 이영모(의대 55) | 이영신(간호 77) | 이정현(문리 58)                           |            |  |  |  |  |  |  |  |  |
|                              |  | 고유규(의대 69) | 백혜란(미대 70) | 정규남(공대 52) | 서상철(의대 50) | 한승순(간호 70) |                 | 임춘수(의대 57) | 이정현(문리 58) | 이정현(문리 58)                           |            |  |  |  |  |  |  |  |  |
| 고재천(공대 57)                   |  | 변영근(수의 52) | 장진성(약대 66) | 정지선(상대 58) | 서정용(약대 63) | 한영수(의대 61) | 캘리포니아 SC/NC/KY  | 전원일(의대 77) | 전원일(의대 77) | 전원일(의대 77)                           |            |  |  |  |  |  |  |  |  |
|                              |  | 공대공(공대 65) | 서동영(사대 60) | 전상승(사대 52) | 신종철(의대 57) | 한태진(의대 54) |                 | 진성호(공대 64) | 진성호(공대 64) | 진성호(공대 64)                           |            |  |  |  |  |  |  |  |  |
| 곽용길(문리 59)                   |  | 서영석(문리 61) | 정동규(공대 57) | 최경선(농대 65) | 성기로(약대 57) | 함종급(간호 66) | 에리조나 ARIZONA    | 진주디(문리 )   | 진주디(문리 )   | 진주디(문리 )                             |            |  |  |  |  |  |  |  |  |
|                              |  | 권기성(경영 72) | 서치원(공대 69) | 정동주(가정 72) | 홍병익(공대 68) | 허경열(의대 73) |                 | 이재민(의대 53) | 이재민(의대 53) | 이재민(의대 53)                           |            |  |  |  |  |  |  |  |  |
| 권영재(의대 )                     |  | 선우원근(공 66) | 정연용(상대 63) | 정연용(상대 63) | 황동하(의대 65) | 허병렬(사법 42) | 사카고 IL/IN/WI/MI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권처관(공대 51) | 성낙호(치대 63) | 정예현(상대 63) | 황만익(사대 59) | 송경태(농대 57) |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김건진(문리 62)                   |  | 성주경(상대 68) | 정임현(문리 66) | 정임현(문리 66) | 정임현(문리 66) | 송경태(농대 57) | 알래스카 ALASKA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경수(치대 58) | 송기용(의대 55) | 정재화(상대 59) | 정재화(상대 59) | 송경태(농대 57) |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김경수(간호 68)                   |  | 손서현(간호 69) | 정재화(상대 64) | 정재화(상대 64) | 정재화(상대 64)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광은(음대 56) | 송영아(음대 85) | 정철용(의대 55) | 정철용(의대 55) | 정철용(의대 55)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규현(법대 53)                   |  | 송하현(공대 61) | 정태무(사대 44) | 계동휘(치대 67) | 송경태(농대 69) | 송경태(농대 69)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기태(의대 52) | 신동국(수의 76) | 정현진(간호 68) | 정현진(간호 68) | 정현진(간호 68)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기현(상대 75)                   |  | 신상하(공대 58) | 정형재(상대 69) | 정형재(상대 69) | 정형재(상대 69)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동산(법대 59) | 신영현(의대 63) | 정 화(공대 64) | 곽상준(약대 55) | 곽상준(약대 55)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동성(음대 64)                   |  | 신정식(상대 64) | 제영혜(가정 71) | 제영혜(가정 71) | 제영혜(가정 71)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동현(문리 61) | 신정연(미대 61) | 조동준(의대 57) | 조동준(의대 57) | 조동준(의대 57)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병연(공대 68)                   |  | 심상은(상대 54) | 조만연(상대 58) | 권영국(상대 60) | 권영국(상대 60)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병관(공대 58) | 안병일(의대 63) | 조상하(치대 64) | 조상하(치대 64) | 조상하(치대 64)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석두(농대 58)                   |  | 양승문(공대 65) | 조재국(농대 67) | 김영현(간호 72) | 김영현(간호 72)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석홍(법대 59) | 양운태(의대 58) | 조재길(사대 61) | 김경애(간호 54) | 김경애(간호 54)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선기(법대 59)                   |  | 양창호(상대 54) | 조지성(공대 60) | 김광현(미대 57) | 김광현(미대 57)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성복( )     | 양태준(상대 56) | 조중자(간호 61) | 김광호(의대 66) | 김광호(의대 66)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성복(간호 81)                   |  | 양태준(상대 56) | 김기훈(상대 65) | 김기훈(상대 65) | 김기훈(상대 65)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성환(의대 65) | 오선우(의대 63) | 지인수(상대 59) | 김동원( )     | 김동원( )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수영(사법 57)                   |  | 조수환(사대 54) | 최경홍(공대 60) | 김동환(약대 56) | 김동환(약대 56)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순길(법대 54) | 오양수(간호 60) | 최경홍(공대 60) | 김동환(약대 56) | 김동환(약대 56)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순재(간호 61)                   |  | 유준식(상대 61) | 최태준(간호 59) | 김명철(공대 60) | 김명철(공대 60)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순자(치대 57) | 위종길(공대 64) | 최복영(상대 56) | 김명철(공대 60) | 김명철(공대 60)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 영(수의 63)                   |  | 유석홍(상대 61) | 최영순(간호 69) | 김문경(약대 61) | 김문경(약대 61)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영태(법대 58) | 유시영(문리 68) | 최용원(공대 57) | 최용원(공대 57) | 최용원(공대 57)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영희(사법 56)                   |  | 유익영(문리 56) | 최재윤(문리 54) | 김병관(공대 63) | 김병관(공대 63)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용재(의대 60) | 유재환(상대 67) | 최종권(문리 59) | 최종권(문리 59) | 최종권(문리 59)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원경(약대 59)                   |  | 유진형(상대 )   | 최 철(의대 )   | 김봉련(사대 54) | 김봉련(사대 54)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인종(상대 74) | 육태현(의대 61) | 허기환(공대 66) | 허기환(공대 66) | 허기환(공대 66)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일영(의대 65)                   |  | 윤경민(법대 55) | 한귀희(미대 68) | 김서유(상대 82) | 김서유(상대 82)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재중(치대 62) | 윤석철(상대 60) | 한근배(공대 65) | 김석식(의대 58) | 김석식(의대 58)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정애(간호 69)                   |  | 윤용길(공대 55) | 한정현(치대 55) | 김석자(음대 61) | 김석자(음대 61)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종태(상대 58) | 윤재자(미대 62) | 한종철(치대 62) | 한종철(치대 62) | 한종철(치대 62)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종표(법대 58)                   |  | 이건일(의대 62) | 한홍택(공대 60) | 김성현(약대 56) | 김성현(약대 56)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준일(공대 62) | 이 관(공대 55) | 한효동(공대 58) | 한효동(공대 58) | 한효동(공대 58)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태무(문리 53)                   |  | 이광재(상대 53) | 허영진(문리 )   | 김수일(약대 62) | 김수일(약대 62)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택수(의대 57) | 이근용(의대 61) | 한기호(상대 71) | 한기호(상대 71) | 한기호(상대 71)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홍목(문리 62)                   |  | 이기재(사대 52) | 홍성진(약대 72) | 김영철(의대 55) | 김영철(의대 55)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영희(사대 58) | 홍수영(의대 59) | 김예름(의대 55) | 김예름(의대 55) | 김예름(의대 55)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김희재(사대 63)                   |  | 이미정(의대 78) | 김용술(상대 56) | 김용술(상대 56) | 김용술(상대 56) | 송경태(농대 57) | 뉴욕 NY/NY/CT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희창(공대 63) | 이미경(농대 59) | 김우영(문리 63) | 김우영(문리 63) | 김우영(문리 63)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나두성(의대 66)                   |  | 이범식(공대 61) | 북가주        | 김우영(상대 60) | 김우영(상대 60)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나만주(음대 65) | 이범성(상대 55) | 김우성(간호 64) | 김우성(간호 64) | 김우성(간호 64)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나수옥(문리 59)                   |  | 이서희(법대 70) | 김성식(의대 61) | 김성식(의대 61) | 김성식(의대 61)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나정자(간호 70) | 이성숙(공대 56) | 김재호(상대 57) | 김재호(상대 57) | 김재호(상대 57)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노명호(공대 61)                   |  | 이소희(의대 61) | 김순화(사법 56) | 김순화(사법 56) | 김순화(사법 56)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노동욱(공대 73) | 이소희(의대 63) | 권오현(사대 61) | 김정화(상대 61) | 김정화(상대 61)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문병길(문리 61)                   |  | 이월의(문리 73) | 김명환(문리 67) | 김정희(간호 69) | 김정희(간호 69)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김정훈(공대 51) | 이원택(의대 65) | 김창호(상대 57) | 김창호(상대 57) | 김창호(상대 57)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민병돈(문리 58)                   |  | 이정길(치대 63) | 김상호(약대 59) | 김정호(상대 22) | 김정호(상대 22)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민수봉(상대 55) | 이재권(법대 56) | 김영춘(사대 64) | 김영춘(사대 64) | 김영춘(사대 64)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박다균(수의 57)                   |  | 이재훈(공대 71) | 김범수(공대 71) | 김범수(공대 71) | 김범수(공대 71)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박부강(사대 64) | 이재선(공대 58) | 김정복(사법 55) | 김정복(사법 55) | 김정복(사법 55)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박성옥(상대 58)                   |  | 이정근(사대 60) | 김현철(음대 56) | 김현철(음대 56) | 김현철(음대 56)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박영희(공대 66) | 이정화(공대 52) | 김현철(공대 64) | 김현철(공대 64) | 김현철(공대 64)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박우성(상대 77)                   |  | 이정희(음대 55) | 남승채(공대 66) | 라준국(공대 47) | 라준국(공대 47)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박원준(공대 53) | 이종도(공대 66) | 노노희(사대 59) | 노노희(사대 59) | 노노희(사대 59)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박은숙(미대 62)                   |  | 이종도(간호 69) | 노규자(공대 59) | 손서면(의대 52) | 손서면(의대 52)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박인수(농대 64) | 이준호(상대 65) | 민병관(공대 65) | 민병관(공대 65) | 민병관(공대 65)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박인창(농대 65)                   |  | 이준희(공대 53) | 박경룡(약대 63) | 민병갑(공대 63) | 민병갑(공대 63)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박일우(의대 70) | 이창무(사대 50) | 박기안(의대 67) | 박기안(의대 67) | 박기안(의대 67)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박지하(의대 56)                   |  | 이재진(문리 55) | 이정진(문리 55) | 박기안(공대 60) | 박기안(공대 60)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박지하(생활 60) | 이 청(농대 61) | 박무규(치대 72) | 박무규(치대 72) | 박무규(치대 72) |                 | 송경태(농대 57)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박제인(약대 60)                   |  | 이정광(상대 61) | 이정광(상대 61) | 정해순(공대 69) | 정해순(공대 69) | 송경태(농대 57) | SAN FRANCISCO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이준우(의대 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주 동문 업소록

| CA 남가주                                                                                                                                                                                                                              |  |  |  |
|-------------------------------------------------------------------------------------------------------------------------------------------------------------------------------------------------------------------------------------|--|--|--|
| 공인회계사                                                                                                                                                                                                                               |  |  |  |
| <b>CPA 김재영 공인회계사</b><br>김재영 (농대 62)<br><br>Tel. (213) 385-1985<br>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  |  |  |
| <b>Kim &amp;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b><br>김경무 (공대 69)<br>Tel. (213) 616-1390<br>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  |  |  |
| <b>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b><br>강신용 (사대 73)<br>Tel. (213) 380-3801<br>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  |  |  |
| <b>이강원 공인회계사</b><br>이강원 (인문대 76)<br>Tel. (213) 387-1234<br>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  |  |  |
| <br>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춘(법대59)<br><br>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  |  |  |
| <b>STANLEY Cha, CPA</b><br>차기민 (공대 85)<br>Tel. (213) 739-5700, (714) 525-1821<br>schacpa@gmail.com<br>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br>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  |  |  |
| <b>Jun Chang CPA &amp; Associates, AC</b><br>장 준 (인문대 85)<br>Tel. (818) 772-2811, (213) 272-2460<br>jun@junchangcpa.com<br>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br>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  |  |  |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br>AXA Advisor                                                                                                                                                                                                       |  |  |  |
| <b>Paramount Planning Group</b><br>조임현 (간호대 72)<br>Tel. (213) 487-3253<br>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br>im.cho@axa-advisors.com                                                                                      |  |  |  |
| 오흥조(치대 56)<br><br>Oh, Heung Jo<br>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br>Tel: (213)382-8205                                                                                                                                    |  |  |  |
| 운송 / 유통 / 원자재                                                                                                                                                                                                                       |  |  |  |
| <b>SeAH Steel America, Inc.</b> (유통/강판도매)<br>이병준 (상대 55)<br>Tel. (949) 655-8000<br>2100 Main Street #100<br>Irvine, CA 92614                                                                                                        |  |  |  |
| OR 오레곤                                                                                                                                                                                                                              |  |  |  |
| <b>Flonomix Inc.</b><br>박희진 (농대 78)<br><br>Tel. (503) 648-0775<br>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  |  |  |

| 식품 / 음식점                                                                                                                                                                     |
|------------------------------------------------------------------------------------------------------------------------------------------------------------------------------|
| <b>자연나라 Jayeng Foods, Inc.</b><br>이승훈 (상대 74)<br><br>Tel. (562) 633-7400<br>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
| <b>Lee &amp; Ro, Inc.</b><br>노명호 (공대 61)<br><br>Tel. (626) 912-3391<br>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
| <b>ACCU Construction, Inc.</b><br>염동해 (농대 74)<br><br>Tel. (714) 641-4730<br>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
| 의료 / 약국                                                                                                                                                                      |
|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br>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br><br>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br>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br>drcchung@yahoo.com |
| <b>Beverly Cardiology Group</b><br>Il Young Kim MD (의대 65)<br><br>Diana Kim MD Tel. (323) 662-1175<br>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br>www.beverlycardiology.com       |
| <b>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b><br>정수만 (의대 66)<br><br>Tel. (714) 539-6414<br>12555 Garden Grove Blvd. #309<br>Garden Grove, CA 92843                                                     |
| <b>Gilbert Pharmacy</b><br>최무식 (약대 66)<br><br>Tel. (714) 638-8230<br>9240 Garden Grove Blvd. #20<br>Garden Grove, CA 92844                                                   |
| <b>Seoul Medical Group ★</b><br>차민영 (의대 76)<br>Tel: 213-480-7770<br>(877) 764-1405<br>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
| <b>나성약국 ★</b><br>임낙균 (약대 64)<br><br>Tel: (213) 387-3030<br>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

| 우주개발 / 기술                                                                                                                                                                     |
|-------------------------------------------------------------------------------------------------------------------------------------------------------------------------------|
| <b>Tayco Engineering, INC</b><br>정재훈 (공대 64)<br>Tel. (714) 952-2240<br>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br>jchung@taycoeng.com<br>www.taycoeng.com                |
| <b>Link TV Media</b><br>김원탁(공대 65)<br>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br>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br>linkboxusa@gmail.com<br>www.linkboxusa.com       |
| 동물병원                                                                                                                                                                          |
| <b>Animal Medical Clinic</b><br>신동국 (수의대 76)<br><br>Tel. (714) 990-1411<br>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
| <b>Francis Animal Hospital</b><br>최재현 (수의대 66)<br><br>Tel. (909) 627-0951<br>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
|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br><br>한상봉 (수의대 67)<br><br>Tel. (510) 232-3465<br>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 변호사                                                                                                                                                                           |
| <b>신혜원 변호사</b><br>신혜원 (사대 81)<br>Tel. (213) 385-3773<br>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
|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br>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br>한태호 변호사<br>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br>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br>www.haanlaw.com |
| 부동산                                                                                                                                                                           |
| <b>Team Spirit Realty</b><br>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br><br>Tel. (714) 396-0624<br>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br>jenniecelee@gmail.com               |
| 마켓                                                                                                                                                                            |
| <b>Han Nam Chain Market</b><br>하기환 (공대 66)<br><br>Tel. 213-381-3610<br>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
| 기타                                                                                                                                                                            |
| <b>Turbo Air, Inc. ★</b><br>서치원 (공대 69)<br><br>Tel: 310-719-5422<br>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
| <b>라 카나다 한인교회</b><br>독고원 (공대 65)<br><br>Tel. (818) 790-7320<br>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 클리닉                                                                                                                                                                                                                                                                                              |
|--------------------------------------------------------------------------------------------------------------------------------------------------------------------------------------------------------------------------------------------------------------------------------------------------|
|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br>이상대 (농대 80)<br><br>Tel. (909) 882-3800(B), (714) 323-8612(C)<br>2095 N. Waterman Ave.<br>San Bernadino, CA 92404                                                                                                                                         |
| 자동차 / 서비스                                                                                                                                                                                                                                                                                        |
| <b>A.P.W. 자동차 부품</b><br>서동영 (사대 60)<br><br>Tel. (310) 753-9636<br>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 CA 북가주                                                                                                                                                                                                                                                                                           |
| <b>두리 하나 결혼정보</b> 정지선(상대 58)<br>'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br>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br>Tel. (510) 224-0760<br>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br>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
| <br>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br>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br><br>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br>Ocean, Arctic, Energy<br>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
| GA 조지아                                                                                                                                                                                                                                                                                           |
| <b>Auto Plaza Group, INC.</b><br>이영진 (공대 76)<br><br>Tel. (404) 579-8282<br>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
| <b>Wesley &amp; Associates, CPA</b><br>윤태우<br><br>Tel. (770) 451-1850<br>3700 Crestwood Pkwy, Suite 380,<br>Duluth, GA 30096                                                                                                                                                                     |
| PA 필라델피아                                                                                                                                                                                                                                                                                         |
| <b>음식점</b>                                                                                                                                                                                                                                                                                       |
| <b>이즈미 일식당</b><br>최종문 (공대 61)<br><br>Tel. (267) 408-7342<br>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br>(ASSI Plaza )                                                                                                                                                                                |
| 동물병원 / 치과                                                                                                                                                                                                                                                                                        |
| <b>Cottman Animal Hospital</b><br>주기목 (수의대 68)<br>Tel. (215) 745-9030<br>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
| <b>Blue Bell Family Dentistry</b><br>김순주 (치대 95)<br>Tel. (610) 278-1110<br>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
| 건축                                                                                                                                                                                                                                                                                               |
| <b>Timothy Haahs &amp; Assoc.</b><br>손재욱 (생활과대 77)<br>Tel. (484) 342-0200<br>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

| NV 네바다                                                                                                                                                                                 |  |  |  |
|----------------------------------------------------------------------------------------------------------------------------------------------------------------------------------------|--|--|--|
| <b>Best Care Dental</b><br>김영중 (치대 66)<br><br>Tel. (702) 384-2828, (702) 480-7115<br>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  |  |  |
| NY / NJ (뉴욕 / 뉴저지)                                                                                                                                                                     |  |  |  |
| 공인회계사                                                                                                                                                                                  |  |  |  |
| <b>Changsoo Kim, CPA P.C.</b><br>김창수 (약대 64)<br><br>Tel. (212) 760-1768, (917) 647-0606<br>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br>changsookimcpa@hotmail.com                        |  |  |  |
| <b>KL CPA &amp; Associates LLC</b><br>이경림 (상대 64)<br><br>Tel. (212) 768-9144<br>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  |  |  |
| 부동산                                                                                                                                                                                    |  |  |  |
| <b>Evergreen Realty</b><br>이재원 (법대 60)<br><br>Tel. (201) 944-5353<br>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  |  |  |
| <b>COSMO Realty</b><br>이재덕 (법대 60)<br>Tel. (201) 944-4949<br>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br>www.cosmorealty.com                                                             |  |  |  |
| <b>Promise Realty</b><br>김도명 (농대 70)<br>조민형 (음대 84)<br><br>Tel. (201) 585-7766<br>172 Main Steet Fort Lee, NJ 07024<br>Email: Promise@DonaldRealty.com                                 |  |  |  |
| 리테일러                                                                                                                                                                                   |  |  |  |
| <b>New York Golf Center</b><br>이전구 (농대 60)<br><br>Tel. (212) 564-2255<br>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  |  |  |
| <b>American Int'l Line, Inc.</b><br>윤병하 (농대 80)<br>Tel. (718) 995-7060<br>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  |  |  |
| 치과                                                                                                                                                                                     |  |  |  |
| <b>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b><br>김성래 (치대 76)<br>Tel. (201) 666-2828<br>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  |  |  |
| <b>계동휘중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b><br>Wayne Kye D.D.S, M.S<br>계동휘 (치대 67)<br><br>Tel. (718) 898-9049<br>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  |  |  |
| 내과                                                                                                                                                                                     |  |  |  |
| <b>백승원 위장내과</b><br>ANDREW S. BAIK M.D.<br>백승원 (의대 73)<br><br>Tel. (201) 302-9774, (732) 744-9090<br>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br>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  |  |  |
| <b>석창호 위장내과</b><br>Chang Ho Suk, M.D.<br>석창호 (의대 66)<br><br>Tel. (718) 461-6212<br>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  |  |  |
| <b>심인보 심장내과</b><br>IN-BO SHIM, M.D.<br>심인보 (의대 77)<br><br>Tel. (201) 569-1800, (718) 836-0009<br>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br>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  |  |  |
| <b>이창석 내과</b><br>Chang Suk Lee, M.D.<br>이창석 (의대 72)<br>Tel. (718) 762-4400<br>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  |  |  |
| 재활의학                                                                                                                                                                                   |  |  |  |
| <b>김치갑 카이로프랙</b><br>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br><br>김치갑 (의대 73)<br><br>Tel. (201) 541-1111<br>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  |  |  |
| <b>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b><br>Seung K. Kim, M.D.<br><br>김승관 (의대 70)<br><br>Tel. (718) 321-2870<br>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  |  |  |
|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  |  |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                                                                                                                                                |                                                                                                                                                                               |                                                                                                                           |                                                              |
|------------------------------------------------------------------------------------------------------------------------------------------------|-------------------------------------------------------------------------------------------------------------------------------------------------------------------------------|---------------------------------------------------------------------------------------------------------------------------|--------------------------------------------------------------|
| 성명 :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 입학연도 :                                                                                                                    | 지부 :                                                         |
| 주소 :                                                                                                                                           | 전 주소 :                                                                                                                                                                        |                                                                                                                           |                                                              |
| 업소이름 :                                                                                                                                         | 업소 주소 :                                                                                                                                                                       |                                                                                                                           |                                                              |
| 전화 :                                                                                                                                           | Email :                                                                                                                                                                       |                                                                                                                           |                                                              |
| 동창회후원금                                                                                                                                         | 동창회비(구독료)                                                                                                                                                                     | 업소록 광고비                                                                                                                   | 일반광고                                                         |
| <input type="checkbox"/> 연 \$200<br><input type="checkbox"/> 연 \$500<br><input type="checkbox"/> 연 \$1,000<br><input type="checkbox"/> \$_____ |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6.7~2017.6)<br><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7.7~2018.6)<br>1년: \$75 / 2년: \$150<br><input type="checkbox"/>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 | <input type="checkbox"/> \$240 (2016.7~2017.6)<br><input type="checkbox"/> \$240 (2017.7~2018.6)<br>1년: \$240 / 2년: \$480 | *문의: 사무국<br>484-344-5500 Ext 302<br>Email: general@snuua.org |
|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 Ext 304                                                                                                                   |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org                   |
|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                                                                                                                                                                               |                                                                                                                           |                                                              |
| Visa (    )    Master (    )    American Express (    )    기타 (    )    전화 484-344-5500                                                        | Ext 302                                                                                                                                                                       | or                                                                                                                        | Check No.:                                                   |
| Card No.:                                                                                                                                      | Security Code :                                                                                                                                                               |                                                                                                                           | Expire Date:                                                 |
| Cardholder' s Name :                                                                                                                           | Date :                                                                                                                                                                        |                                                                                                                           |                                                              |
| Address No. Only                                                                                                                               | Zip                                                                                                                                                                           |                                                                                                                           | Pay to order of 'SNUAA-USA'                                  |

|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귄)                                                                                                              |  |  |  |  |  |
|-------------------------------------------------------------------------------------------------------------------------------------------------------------------------|--|--|--|--|--|
| 서울대 미주동창회                                                                                                                                                               |  |  |  |  |  |
| 역대회장                                                                                                                                                                    |  |  |  |  |  |
|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br>오홍조(치) · 이영묵(공) · 이진구(농) · 송승영(문) · 김은중(상) · 오인환(문)                                                              |  |  |  |  |  |
| 명예회장 : 오인환(문)                                                                                                                                                           |  |  |  |  |  |
|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  |  |  |  |  |
|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윤상래(수의)<br>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br>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하용출(문)<br>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 · 고병은(문)<br>고문   전방남(상) · 고병은(문)                                  |  |  |  |  |  |
|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  |  |  |  |  |
| 총무국장   심희진(음)      사업국장   한중희(공)<br>조직국장   백옥재(음)      해외국장   박형준(공)<br>재무국장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허유선(가정)<br>IT개발위원장   김원영(미)      사무장   서경희<br>(Webmaster)          |  |  |  |  |  |
|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  |  |  |  |  |
| 편집위원장   김정현(공)      주필   정홍택(상)<br>편집위원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 이성숙(가정)<br>정덕준(상) · 정태광(공) · 지재원(사) · 한정민(농)<br>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역(공) · 홍선례(음)<br>편집/디자인   김태연 |  |  |  |  |  |
|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  |  |  |  |  |
| 논설위원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br>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br>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br>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  |  |  |  |  |
|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  |  |  |  |  |
| 위원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br>이강원(공) · 이민언(법) · 함은선(음)                                                                                                               |  |  |  |  |  |
|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  |  |  |  |  |
|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br>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  |  |  |  |  |
|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  |  |  |  |  |
|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br>이원섭(농) · 강창석(의)                                                                                                                       |  |  |  |  |  |
|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  |  |  |  |  |
| 각 지역 지부장                                                                                                                                                                |  |  |  |  |  |
|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  |  |  |  |  |
|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br>이원섭(농) · 강창석(의)                                                                                                                       |  |  |  |  |  |
| 감사                                                                                                                                                                      |  |  |  |  |  |
| 주기묵(수의) · 박영철(농)                                                                                                                                                        |  |  |  |  |  |

워싱턴가정상담소(FCCGW)는 지난 42년 동안 건강한 개인,행복한 가정,화목한 사회를 향한 비전을 갖고 미주 한인들과 다문화 가정에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청소년 및 시니어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예방 세미나를 제공해왔습니다.

새아예도 같은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상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 한정민(농 87) Monica Lee, LCPCw.org, www.FCCGW.org

### 워싱턴가정상담소

- ▶매릴랜드(Columbia), 주 1-2회 상담 제공(2월부터)
- ▶인터넷/스마트 폰 과다사용 관련 세미나(3월)
- ▶과잉행동(ADHD), 청소년 우울증, 성교육 세미나(3월)
- ▶연례모금행사(5월)
- ▶성인미술 워크샵-마음과 미술이 만날때(5월)
- ▶하나되기 캠페인-스카이 매도우 공원 산행(6월)
- ▶시니어를 위한 지역봉사-내방 상담, 그룹 특별활동

### GT(Green Tree) Learning Center

- ▶볼맞이 그림공모전(K-12학년)
- ▶도래 그룹 학습지도(P2P)
- ▶개별 학습지도
- ▶"배우고, 즐기는" 여름캠프(1-6학년)
- ▶그룹 미술 프로그램
- ▶청소년 리더쉽 그룹제도(9-12학년)
-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행, 지도자상 수여

\*개인 및 단체 후원은 아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본 기관은 비영리단체로 모든 후원금은 세금공제혜택이 있습니다.

1952 Gallows Rd., Ste 210 Vienna, VA 22182      703.761.2225, counseling@fccgw.org, www.FCCGW.org

jayone.com

##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74)

## eco-friendly

STATIONERY & GIFTS FOR PET AND NATURE LOVERS  
MADE IN U.S.A.

김명혜 (미대77)

WWW.PAPERRUSSELLS.COM      P. 866.517.7738  
INFO@PAPERRUSSELLS.COM      F. 801.479.4663

서울대 동문 10% 할인

혼자이긴 하지만  
아까운 당신  
기절환해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MAKE THE WORLD BEAUTIFUL



#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대표 이병준(상대 55)

